부산미술협회 80주년 기념

부 산 미 술

계간 부산미술

1992년 10월 1일 창간
2014년 2월 7일 복간

미술인 위상 강화와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부산미술협회 www.bfaa.or.kr 제113호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창립 80주년 부산미술협회, 2026 하반기 풍성한 예술의 장 열어

제46회 부산미술제 · 제15회 BFAA국제아트페어 · 제52회 부산미술대전 개최

다채로운 작품 세계 선보이며,
지역 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부산미술의 저력 선보여





2025 제45회 부산미술제, 제14회 BFAA국제아트페어 전경(왼쪽)과 2025 제45회 부산미술제, 제14회 BFAA국제아트페어 개막식.

(사)부산미술협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부산미술제, BFAA국제아트페어, 부산미술대전을 잇달아 개최하며 부산 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한다. 지난 80년간 부산 미술의 성장과 함께해온 부산미술협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미술의 성과를 되짚는 한편, 부산지역미술인들의 개성이 담긴 작품과 전시를 통해 부산미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동시대 미술의 흐름과 가능성을 선보인다.

올해는 (사)부산미술협회와 부산일보의 창립·창간 80주년을 기념해 '우리집 미술관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지난 9월 3일부터 20일까지 부산·경남에 거주하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았다. 선정된 가정은 부산미술제와 BFAA국제아트페어에 초대돼 전시장을 직접 둘러보고 원하는 작품을 선택한 뒤, '그림 한 점이 우리 가족에게 전해줄 특별한 의미는 무엇인가요?'라는 주제에 맞춰 작품을 선택한 이유와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의미를 담은 사연을 제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작품 기부 방식과 달리, 수혜 가정이 직접 작품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가운데 10가구 이상을 선정해 15호 이내, 최대 300만원 상당의 원화 1점을 각 가정에 무상으로 기증할 예정이다.

(사)부산미술협회와 부산일보, BNK부산은행이 함께 후원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미술관과 전시장에 머물던 예술을 가족의 일상으로 확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에 한 점의 작품을 들이고,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하며 작품과 함께 특별한 기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집 미술관'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예술이 특정한 공간에서만 경험하는 대상이 아니라 삶 가까이에서 자연스럽게 누리고 향유하는 문화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46회 부산미술제

(사)부산미술협회가 주최하고, 2026 부산미술제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부산광역시,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부산방송총국, 부산MBC,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이 후원하고, BNK부산은행 특별협찬하는 '제46회 부산미술제'가 오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A홀에서 열린다. 개막식은 10월 15일 16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산미술제는 부산미술인들의 창작 역량과 예술적 성과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종합미술축제다. 매년 변화하는 시대의 감각을 담아내면서도 지역 미술이 지닌 고유한 정체성을 이어가며, 작가와 시민, 미술계가 함께 호흡하는 열린 예술의 장으로 그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올해는 회원 481명과 비회원 95명 등 총 576명의 작가가 참여해 한국화, 서양화, 조각, 판화, 공예, 디자인, 서예, 학술·평론, 영상·설치·행위, 문인화, 수채화, 민화·불화 등 12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처럼 장르와 표현방식의 경계를 넘어 지역 작가들이 꾸준히 이어온 창작의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며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지난해 대비 서양화·조각·공예 장르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보다 폭넓은 창작 경향과 동시대 부산미술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5회 BFAA국제아트페어

(사)부산미술협회가 주최하며, BFAA국제아트페어 운영위원회가 주관하고, 부산광역시, 디자인 글꼴, 부산메세나협회,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부산방송총국, 부산MBC, 부산·경남대표방송 KNN이 후원하고, BNK부산은행, (주)상지엔지니어링,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 스페이스 원지, 한가족요양병원, 동서대학교, (주)아이에스, (주)가야특수강, (주)율곡, 법무법인 시우, 한국요양병원, (주)한국미래교육, 금정농협, 이미경뷰티크, 크린코리아 에스엔, 다운트빌리지가 특별협찬하는 '2026 제15회 BFAA국제아트페어'가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4홀 (B·C·D)에서 열린다.

작가가 전시의 주체가 되어 직접 작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작가 중심의 아트페어를 지향하는 BFAA 국제아트페어는 문화와 예술, 일상이 어우러진 도시이자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무대로 역량 있는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선보이는 자리다.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들이 참여해 오늘날 미술의 다양한 경향과 흐름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작품을 매개로 작가와 관람객, 미술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을 마련해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번 아트페어에서는 한국화와 서양화를 비롯해 조각, 판화, 공예, 디자인, 서예, 학술·평론, 영상·설치·행위, 문인화, 수채화, 민화·불화 등 총 12개 장르를 폭넓게 아우른다.

이번 BFAA국제아트페어는 부산미술협회 회원을 비롯한 미술인들의 참여 부스를 중심으로 A부스 59개, B부스 21개, C부스 30개 등 총 111개 부스가 접수됐다. 회원 204명, 비회원 130명 등 총 334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천여 점의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작가들이 지닌 가능성을 펼쳐 보이는 '부산지역 청년작가 초대전', 부산의 아름다운 명소와 전통을 담은 부산자랑10가지를 주제로 청소년들이 표현한 '제35회 부산자랑 10가지 순회 시민예술제 전시 및 시상식', '국제교류전', '아트마켓'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제52회 부산미술대전

(사)부산미술협회가 주최하고, 부산미술대전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부산광역시,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부산방송총국, MBC문화방송,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이 후원하고, BNK부산은행이 특별후원하는 '2026 제52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이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전시실과 부산시청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개막식은 12월 1일 오후3시 부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부산미술대전은 1975년 첫 개최 이래 부산 미술의 반세기가 넘는 역사와 맥을 함께하며 지역을 넘어 전국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공모전으로 그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서예 부문에서는 한문, 한글, 캘리그라피, 서각을 포함해 총 239점이 입상작으로 선정됐으며, 문인화 부문에서도 150점이 입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제52회 부산미술대전 서예 부문 대상은 김상지 작가가, 문인화 부문 대상은 정병철 작가가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화, 서양화, 조각, 판화, 공예, 디자인, 학술·평론, 영상·설치, 수채화, 민화·불화 2차 심사는 11월 17일 부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 기사 9면)



한 폭에 겹친 부산 미술의 새로운 시간들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2026년은 부산 미술의 여러 시간이 한꺼번에 만나는 해입니다. 부산미술협회의 80년, 2년간의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연 시립미술관, 65일간 세계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이는 부산비엔날레가 한 도시 안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이제 이 시간들을 부산 작가의 다음으로 이어야 합니다.

부산미술협회의 지난 80년에는 부산 작가들이 지켜온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예술가들은 부산의 다방과 골목에 모여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열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다시 붓을 들었고, 작품을 완성하면 또다시 작업실로 돌아갔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이 오늘 부산 미술의 깊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또 다른 시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면 개보수를 마친 부산시립미술관은 부산 미술의 역사를 다시 보고 새로운 작품을 만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전시가 한창인 부산비엔날레에는 22개국 46명의 작가가 참여해 부산현대미술관과 영도 곳곳에서 '불협하는 합창'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함께 울릴 때 어떤 새로운 감각이 생겨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 미술의 다음 경쟁력은 전시가 끝난 뒤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비엔날레를 찾아온 국내외 기획자가 부산 작가의 작업실을 찾아가고, 미술관에서 작품을 본 시민이 지역 작가의 다음 전시를 기다리며, 전시에서 시작된 관심이 작품의 구매와 소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이 작가의 다음 작품과 다음 무대로 계속 이어지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산 미술의 여러 주체가 더욱 촘촘하게 연결돼야 합니다. 작업실에는 자기 언어를 다듬는 작가가 있고, 그 가치를 발견해 세상에 알리는 기획자와 비평가도 있습니다. 미술관과 화랑은 작품이 새로운 관객을 만나게 하고, 기업과 시민의 구매와 후원은 작가가 다시 작업실로 돌아갈 힘이 됩니다. 이 움직임들이 따로 머물지 않고 서로 이어질 때, 한 작가의 시간은 부산 미술의 역사로 남고 다음 작품을 낳는 힘이 됩니다.

부산시는 이 연결을 만드는 일에 힘을 쏟겠습니다. 빈집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작·전시 공간을 늘리고, 문화예술 지원을 고도화하여 작품 제작·발표·유통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플랫폼 051'에는 부산 예술인의 작품과 활동을 차곡차곡 쌓아 시민과 기업의 전시·구매·후원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 연결에서 부산미술협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200여 명의 미술인이 함께하는 협회가 새로운 작가를 발견하고, 선배와 후배의 작업을 이어주며, 부산의 작가와 국내외 미술계를 연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부산미술협회의 지난 80년이 작가들의 다음 작품으로 이어져 왔듯이, 2026년 부산 미술계에 열린 여러 무대는 또 다른 80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한 작가가 이곳에서 자기 세계를 키우고,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산시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다와 항구가 빚어 낸 부산미술의 정체성



강무길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예술의 도시, 부산.' 오늘의 부산을 이야기할 때 예술은 더 이상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부산에는 바다와 항구라는 특별한 풍경이 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열린 바다와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항구는 이 도시를 언제나 다양한 문화와 감각이 만나는 장소로 만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과 도시의 역사가 빚어낸 풍부한 감수성 위에 영화와 공연, 음악과 미술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이 꽃피면서 부산은 이제 명실공히 '예술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부산 예술의 시작과 성장을 이야기할 때 부산 미술은 그 중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역입니다. 부산 미술은 오랜 시간 부산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전쟁기 임시수도였던 부산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피란 예술가들이 모였고 이들은 서로의 예술적 자극을 주고받으며 미술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당시 부산의 다방들은 갤러리의 역할을 하며 전쟁 중에도 다양한 미술전이 펼쳐지는 문화적 공간이 되었습니다. 고희동, 천경자, 김환기, 장욱진, 이중섭 등 우리나라 근현대미술을 이끈 화가들도 부산에 머물며 지역 화단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러한 예술적 에너지가 미술에 머무르지 않고 문학과 음악, 공연을 비롯한 부산의 여러 문화예술 분야로 확산돼 새로운 흐름을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후에도 부산 미술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표현방식과 매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이어오며 부산 예술의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와 발전의 중심에는 부산미술협회를 비롯한 지역 미술인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부산미술협회는 독창적인 기획과 선도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 미술의 지평을 넓히고 부산 미술의 정체성과 위상을 확립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부산 미술을 향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 그리고 창작과 교류를 멈추지 않았던 지역 미술인들의 노력은 부산 미술이 지역이라는 경계를 넘어 국내외 미술계와 소통하고 활동의 외연을 넓혀가는 든든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술은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한 도시의 역사와 기억, 그리고 수많은 예술가의 고민과 작업이 오랜 시간 축적될 때 비로소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부산 미술이 걸어온 길도 그러합니다. 수 많은 선배 미술인들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새로운 세대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해 왔으며 그렇게 쌓인 시간과 성과가 오늘의 부산 미술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이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로 더 도약하는 데 있어 부산 미술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예술적 저력과 가치를 다시 한번 보여주리라 기대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미술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다양성과 새로운 가치에 주목하고 부산만의 고유한 예술적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에서 탄생한 작품과 예술적 성과가 지역의 자산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적 가치로 확장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창작과 도전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부산 예술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온 부산 미술이 앞으로도 미래의 지평을 넓혀가며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문화예술도시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부산미술 80년, 예술의 힘으로 미래를 열다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

부산 문화예술의 든든한 뿌리이자 지역 미술계를 대표하는 부산미술협회의 창립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지난 80년의 영욕의 도전과 역사 속에서 부산미술협회를 훌륭히 이끌어 오신 역대 회장님들과 원로 작가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부산 미술의 지평을 넓히고 창작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최장락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부산미술협회가 걸어온 80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 세대의 역사를 넘어 여러 세대의 예술가들이 함께 일구어낸 살아있는 역사이며, 수많은 작가들의 뜨거운 열정과 창작 혼, 그리고 예술을 향한 헌신으로 일구어 온 소중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1946년 '부산미술가동맹'으로 첫발을 내디딘 부산미술협회는 한국전쟁의 깊은 상흔과 격동의 시대를 지나오면서도 부산의 예술혼과 창작의 맥을 굳건히 이어왔습니다.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 세계화로 이어지는 시대의 큰 변화 속에서도 부산 미술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오는 한편, 새로운 창작 정신을 끊임없이 모색하며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부산 역시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해양 수도로서 끊임없는 도전과 역동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부산미술협회는 이러한 부산의 도시 정신을 예술로 승화하여 시대의 모습을 담아내고, 부산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꾸어 왔습니다. 나아가 지역의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에 예술의 가치와 감동을 더함으로써 부산을 더욱 풍요로운 문화도시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오늘날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도시로 성장하기까지는, 지난 80년 동안 부산의 예술적 기반을 굳건히 다지고 문화의 저변을 넓혀 온 부산미술협회의 값진 노력과 헌신이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산미술협회가 일구어온 80년의 역사는 곧 부산의 문화예술이 걸어온 역사이며, 앞으로 부산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데에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 사회 전반의 질서를 재편하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술 역시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창작의 방식은 물론 작품을 향유하고 소통하는 방식까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예술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아름다움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그리고 동시대의 정신을 담아내는 창조적 상상력이야말로 예술의 변함없는 본질입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에 부산미술협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잇고,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며,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선도하며 부산 미술의 중심으로 더욱 힘차게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원로 작가들의 깊은 경륜과 혜안, 중견 작가들의 풍부한 역량, 그리고 청년 작가들의 참신한 감각과 실험정신이 서로 어우러질 때, 부산 미술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80년의 세월은 지나온 역사를 기념하는 이정표인 동시에, 새로운80년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부산미술협회가 지난 80년동안 쌓아온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창의와 혁신의 새로운 길을 열고, 지역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문화예술 교류의 중심으로 더욱 힘차게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부산의 국제적 위상과 풍부한 문화적 잠재력에 부산미술협회의 예술적 역량이 더해진다면, 부산은 세계와 소통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 입니다. 자랑스러운 부산 미술의80년을 넘어 앞으로의 새로운 80년에도 부산미술협회가 시민과 깊이 호흡하며 대한민국 미술의 발전을 이끌고 세계 미술과의 교류를 선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립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예술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경의를 표합니다. 부산미술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작가를 주목한다 37

생의 한가운데서

대담/글 : 정연은(학술명론분과위원)

☑ 서양화 권 순 교



늦은 여름의 더위가 가승을 부리던 오후, 부산 재송동의 177갤러리를 찾았다. 2층 작업실에는 오래된 화구와 크고 작은 그림들이 넓은 벽면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었다. 한 사람이 오랜 세월 그림과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이 공간에서 느껴졌다. 화면마다 번지고 스미고 긁힌 흑과 백의 흔적들, 그 안에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생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있었다.

권순교의 화업은 중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림 그리기를 유난히 좋아했던 소년이었지만, 그때는 그림이 평생의 길이 되리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를 그림 앞으로 이끈 것은 선천적으로 약했던 몸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심장병을 앓아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웠고, 친구들이 학교에 간 시간에 홀로 투병해야 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은 어린 나이부터 죽음을 가까운 현실로 받아들이게 했고, 역설적으로 살아 있는 모든 것의 존귀함을 일깨웠다. 그의 작품에서 인간과 자연, 생명이 끊임없이 뒤섞이며 되살아나는 까닭도 이 체험과 무관하지 않다.

사춘기와 청년기의 많은 날을 병마와 싸워야 했던 그는 그 긴 시간을 책으로 채웠다. 열대여섯 살 무렵부터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은 그는 지금까지도 엄청난 독서광이다. 문학과 철학, 종교와 예술을 가리지 않고 읽으며 책 속의 수많은 인간과 사상을 만났다. 혼자 걷고 읽고 생각한 스물다섯 살까지의 숙명적인 시간은 그를 세상 밖으로 밀어내는 대신 자기 내면으로 깊이 데려갔다. 그의 추상 화면이 감각적인 붓질에 그치지 않고 사변적인 깊이를 갖는 데에는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독서와 사색의 힘이 자리한다.

그는 중학교 때부터 김일탕·김청정·한상돈 같은 좋은 스승을 만났고 이후 부산미술사의 큰 자취를 남긴 김종식 교수에게 배웠다. 특히 스물여덟의 늦깎이 대학생으로 만난 김 교수의 말은 평생의 화두가 되었다. "설명하려 하지 말고, 다만 너의 것을 찾아라." 이 가르침은 무엇을 그릴 것인가 보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게 했다.

대학 입학은 늦었지만, 교직 생활은 일찍 시작했다. 선화여상, 현재의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미술을 가르치면서도 작가라는 정체성을 놓지 않았다. 서른두 살부터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밤을 새워 작업했다. 2001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첫 개인전을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후 국내 전시를 준비하면서 아내가 어떤 희귀암으로 쓰러졌다. 그는 아내를 5년간 돌본 끝에 떠나보냈고, 한동안 붓을 잡지 못하다가 선배의 권유로 작업실에 돌아왔다. 상실 이후 되찾은 붓이었기에 그의 화면에는 삶의 겉모습보다 그 밑에 흐르는 침묵과 무게가 더욱 짙게 배어 있다.

작업 앞에 선 권순교는 구체적인 대상을 미리 정해 두지 않는다. 무엇을 명확히 그려내겠다는 의도도 가능한 한 내려놓는다. 파스텔과 연필로 그은 선, 번지고 닦이고 긁혀 나간 자국들이 서로 겹치면서 물과 연꽃, 인체를 닮은 형상들이 부분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것들은 금세 다른 이미지 속으로 스며들어 완전한 실체를 붙잡기 어렵게 한다. 작가는 무아의 경지에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붓을 들고, 순간마다 떠오르는 영감의 흔적을 화면에 한꺼번에 펼쳐 놓는다. 해체와 결합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무의식은 스스로 새로운 조형의 질서를 찾아간다.



경계에 서서, 130.3x162.2cm, 2017

특히 '누드' 연작에서 알몸은 단순한 신체의 재현이 아니다. 작가는 알 수 없는 덩어리 속에 감춰진 진실을 찾아내듯 붓질한다. 칠한 뒤 벗겨내고, 다시 덮고 벗기는 과정은 껍질을 떼어내는 일처럼 시원해 보이면서도 깊은 아픔을 남긴다. 해체된 신체의 흔적과 순수하지만, 공격적인 붓질 속에서 기쁨과 고통은 하나의 깊이로 교차한다. 그의 추상은 인간성의 본질을 찾으려는 구도자의 몸짓에 가깝다.



여정_227x145.5cm, 혼합재료, 2017.



경계에 서서_162x.2x130.3cm, 혼합재료, 2019



경계에 서서_116.8x91.7cm, 혼합재료, 2021

작품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물의 이미지는 유년의 기억과 맞닿아 있다. 작가는 어린 시절 부산 해운대 '못안' 마을에 살았다. 지금의 해운대 시립도서관 자리에 수백 년 동안 존재했던 커다란 연못이 있었고, 그는 그곳에서 오래 바라보고 생각하며 추억을 쌓았다. "연못의 잔잔한 이미지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비워지고 여유로워졌어요. 그때의 기억이 내면 깊이 남아 지금의 작품에 투영된 것 같습니다." 작품 〈연〉과 '물 이미지' 연작은 바로 그 기억이 의식의 지사를 거치지 않고 화면 위로 되돌아온 결과다. 연꽃과 물결은 풍경의 재현이 아니라, 작가가 오래 품어온 고요와 생명의 원형에 가깝다.

초기 작품과 오늘의 작품을 비교할 때 생명과 인간을 바라보는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느냐고 물었다. 작가는 잠시 생각한 뒤 담담하게 답했다.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늘 있는 그대로예요. 기본적인 조형성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래서 도전하는 그 자체를 즐기는 중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말은 제자리에 머물렀다는 뜻이 아니었다. 인간과 생명의 본질을 향한 시선은 한결같되, 이미 익숙해진 조형의 틀을 의심하고 넘어서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된다는 뜻으로 들렸다.

권순교의 그림은 얼핏 보면 난해하다. 그러나 화면 앞에서 눈을 천천히 풀어놓으면 길이 열린다. 검은 덩어리는 물속의 바위가 되었다가 인체의 일부로 보이고, 희게 비워진 공간은 안개와 빛, 아름 붙지 않은 생명의 기운으로 바뀐다. 평론가 고 박병근은 그의 작품이 '알몸-누드-진실'을 내포한 채 새로운 의미의 인간성 표현을 시도한다고 평했다. 노자의 '상선약수'처럼 그의 화면 속 형상도 한자리에 고정되지 않은 채 낮은 곳으로 흐르며 서로 만나고 흩어진다.

그에게 그림은 세상에 무엇인가를 과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미술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도를 닦듯 나를 완성해 가는 것"이 그가 추구하는 가치다. 어린 시절부터 심부전증으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살았기에, 그는 오히려 생명을 무엇보다 존귀하게 바라보게 되었다. 한 번뿐인 생을 재물과 명예, 정해진 형식과 타인의 지시에 불들린 채 살 수 없다는 자각은 그의 삶과 그림을 자유로 향하게 했다. 수채화와 유화, 파스텔의 경계를 넘나들고 흑과 백으로 수만 가지 감각을 일으키는 그의 작업은 그 자유를 얻기 위한 오랜 실천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화실을 나섰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각이었다. 그런데 한여름의 해는 아직 서쪽 하늘에서 물러나지 않은 채 건물과 나뭇잎 위에 환한 빛을 오래 머금고 있었다. 병과 고독, 상실을 건너온 뒤에도 붓을 놓지 않고 익숙한 조형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즐기는 그의 생도 그 빛과 닮아 보였다. 저물 때를 알면서도 쉽사리 어두워지지 않고, 남은 빛을 아낌없이 세상에 건네는 여름의 저녁. 그 밝음 속에서 나는 다시 생각했다.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기에 삶을 얽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람, 권순교는 결국 자유주의자다.

2026년
-몽 - 빈500(갤러리177)
-권순교개인전 공존100Face Ddawing (갤러리177)
2025년
-권순교 파스텔 초대 개인전 (M523Cafe, Gallery)
-무의식 찾은 생명의 본 모습 (도화헌미술관 초대개인전)
-권순교 초대 개인전 (다시 보는 광복화랑)
-부산미술협회 수채화 분과 전 초대 (부산시청전시실)
-S문화예술기획 현대미술을 철학하다 (갤러리177)
-한국파스텔협회 초대전(도슨트갤러리)
-갈매랑 축제 예술토핑전 (부산시민공원 다솜갤러리)
-해외작가 100호 교류전 (부산시청전시실)
-익산W미술관,도화헌미술관 교류전 (익산W미술관)
2024년
-한 - 브루나이 수교40주년 초대전 (브루나이 에너지 허브 갤러리)
-BFAA 아트페어

자연의 울림과 삶의 에너지

지나온 시간,
빛과 형상으로
다시 피어나는 생명의 감각


서양화가 장행자

부산의 바다와 산, 들을 가까이하며 살아온 장행자 원로작가는 여행에서 마주한 풍경과 삶의 순간들을 감각과 기억으로 되새기며 작품에 담아왔다. 그의 초대전 '에너지(Energy)'가 9월 7일부터 22일까지 갤러리 아트독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자연의 울림을 바탕으로, 석양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아온 세월을 하나의 노래처럼 떠올리고 그것을 형과 색으로 담아 10호부터 100호까지 총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의 대표작품 〈에너지〉는 장시간의 여정 끝에 마주한 백도의 수많은 바위섬이 주는 장엄함과 감동을 담아낸 작품이다. 작가의 기억 속에서 하나의 강렬한 에너지로 남은 경험은 화면 위에서 구체적인 풍경을 넘어선 감각적 이미지로 변모했으며, 자연 앞에서 느낀 인간의 경외와 감동을 담아낸 내면의 풍경이기도 하다.

장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의식 이전의 감정과 직관, 삶의 경험 속에서 축적된 내면의 울림"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이처럼 화면 속 형과 색은 눈에 보이는 대상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생명에 대한 감각을 드러내는 조형적 언어가 되었다.


에너지_90.9x72.7cm, oil on canvas.

추상표현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장 작가의 회화는 빛과 자연의 느낌을 화면에 구성하며, 유형의 세계와 무형의 감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명력을 그려낸다. 장시간 유화 작업을 통해 천천히 쌓아 올리는 화면이 있는가 하면, 아크릴의 속도감과 즉흥성을 활용해 순간적인 감각을 포착하기도 한다.

때로는 마티에르 위에 콜라주를 더하며 재료의 물성과 우연적 효과를 받아들이고, 작품의 상황과 감각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하는 태도 역시 그의 회화가 지닌 중요한 특징이다.

작가에게 자연을 바라보는 일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 되었고, 자연에서 받은 인상은 기억과 감정으로 내면에 스며들어 다시 화면 위로 흘러나온다.

석양을 바라보며 빛이 서서히 사라지는 순간에도 화면은 오히려 강렬한 색과 에너지로 충만해지듯 삶의 후반부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소멸이나 회한에 머물지 않는다.

삶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

수많은 선과 색의 층위 속
생명의 순환과
내면의 평온을 담아


서양화가 이충길

한국전업미술가상, 부산전업미술가상, 부산예술대상을 수상하며 자연과 생명이 피워내는 생명력을 함축적인 조형언어로 작가의 길을 걸어온 이충길 작가의 제15회 개인전 '나눔과 공존이 동래구청 1층 특별전시실에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자연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인간에 대한 관조와 그리움, 삶과 생명의 의미를 탐구하는 작가의 미학적 고찰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이 서로 다른 존재들을 어떻게 품고 살아가며 생명력을 더해 가는지에 주목한다. 화폭 속 자연과 동심을 자극하는 요소들은 장식이나 풍경을 넘어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상징이자,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존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가 빚어낸 서정적인 공간 속에서, 서로 조응하며 자연 속에서 느끼는 생명의 순환과 내면의 평온을 함께 보여준다.

이 작가는 고등학교 시절 각종 미술대회에서 수상하며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며 자신만의 조형세계를 구축해왔다. 초기에는


불꽃_72.7x53.0cm, mixed media, 2025.

나이프를 활용해 굵고 거친 선과 두터운 물성을 강조하며 역동적인 화면을 선보였다. 이후 작업을 거듭하며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물감을 두껍게 올리는 임파스토 기법과 실타래처럼 얽힌 선들이 독특한 마티에르의 스퀴징 페인팅 기법을 발전시켰다.

작가는 근원적 에너지를 품은 경쾌한 원색을 배경으로 물감이 나아가는 방향과 강약, 화면의 채움과 비움을 세밀하게 조절하며 하나의 화면 안에 수많은 선과 색의 층위를 만들어낸다.

새로운 표현과 서사적 추상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는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일이 곧 행복이라고 말한다. 오랜 시간 축적해온 나이프의 강렬한 물성과 기법의 섬세한 중첩, 그리고 자연을 향한 사색이 어우러진 이번 전시는 이충길 작가가 걸어온 회화의 여정과 현재의 작업세계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이 품은 시간과 삶의 온기

자연의 정서를 화폭에 담아
산과 인간,
삶의 경험과 시선을 더하다

서양화가 김혜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그 안에 수많은 시간과 이야기를 품은 '산'을 그려온 김혜분 작가의 개인전 '산이 품은 풍경,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에서 열린다.

작가에게 산은 자연의 모습을 넘어 자신의 기억과 경험, 감정을 투영하는 매개체다. 이번 전시에서는 25~30점의 평면작업을 통해 익숙한 풍경에 삶의 이야기를 겹겹이 쌓아 올리며 자연의 생명력과 삶의 온기를 조용히 전한다.

주변의 산을 바라보고 현장에서 자연을 스케치하며, 그곳에서 마주한 풍경에 어린 시절의 기억과 오랜 경험을 덧입히는 작가가 주목하는 것은 산 정상에 도달하는 순간의 장엄함만이 아니다. 산을 오르내리며 만나는 작은 풀꽃과 나무, 바람과 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빛과 색에 더욱 마음을 기울인다.

그의 작업에서 색은 풍경을 설명하는 수단을 넘어 자연의 감각과 정서를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다. 하나의 색을 선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색을 더하고 수정하고 다시 덜어내는 과정을 반복하며 화면의 균형을 찾아간다.


설악 만설 _30p, oil on canvas.

수많은 수정과 반복을 거쳐 마지막 결과에 도달하는 작업 방식은 자연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과 닮아 있다. 이처럼 산을 바라보며 시작된 작가의 그림은 눈앞에 존재하는 실상과 마음속에 남아 있는 기억과 감정이 만나 하나의 풍경으로 완성되는 과정에 가깝다.

이번 전시는 김 작가에게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도전이기도 하다. 서울의 전시 공간에서 개인전을 선보이며 자신의 작업을 보다 넓은 미술계와 관람객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또한 최근에는 산을 보다 자유롭게 해석하는 비구상 작업에도 관심을 두고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고 있다. 눈앞에 보이는 산의 형태에서 출발해 점차 구체적인 형상을 넘어 색과 질감, 에너지와 감정으로 자연을 표현하는 작업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오는 12월 예정된 아트쇼 준비와 함께 새로운 작업에 대한 시도도 이어갈 계획이다.

여백과 선으로 확장하는 문인산수화의 세계

전통에서 현대까지,
문인산수화의 경계를 넘어
피어나는 새로운 변주


문인화가 황외성

문인화가 황외성 작가의 개인전 '문인산수화의 확장과 드로잉 작업으로의 변주'가 부산과 서울에서 잇따라 열린다. 부산 전시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서면 영광도서갤러리에서, 서울 전시는 12월 2일부터 8일까지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칠십에 이르기까지 추구해 온 작가의 작업을 정리하고 그동안 추구해온 문인화의 방향을 되짚어보는 자리이자, 전통 문인산수화의 현대적 수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시이다.

전시에서는 실경산수와 현장 수묵드로잉을 중심으로 100호 이상의 대작과 소품을 함께 배치한다. 150호와 80호 대작 4점을 비롯해 다양한 크기의 작품 총 64점을 선보이며, 대작과 1호에서 10호에 이르는 소품을 함께 구성해 화면의 확장과 축소가 만들어내는 조형적 효과를 보여준다.

황 작가는 오랜 시간 연마해온 서예적 획을 바탕으로 드로잉적인 선을 자유롭게 구사하며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해왔다. 선 하나에 감정을 담아내며 표현의 한계를 넓혀왔고, 먹이 만들어내는 오묘한 색감과 농담의 변화에 매료되어 수묵담채 작업을 이어오고


북한산성 28-23 _수채화지, 수묵, 2026.

있다. 여기에 20년 이상 지속해온 누드드로잉과 현장 인물드로잉에서 얻은 선의 감흥을 더하며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확장'과 '변주'에 주목한다. 작가는 기존의 한지와 먹 중심 작업에서 벗어나 수채화지와 특수지, 캔버스 등을 활용하고, 한국화 물감과 아크릴, 파스텔 등 다양한 재료를 수용한다. 전통적인 문인화의 정적인 구도와 정신은 유지하면서 강한 색면과 새로운 재료를 통해 현대적인 조형언어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는 문인화가 과거의 표현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확장하려는 작가적 시도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는 전통 문인화에 새로운 재료와 소재를 받아들이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자신만의 방식을 구축해가는 작가의 시도를 통해 문인화의 한층 넓은 가능성과, 감상, 그리고 소장문화의 확장에도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심연,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리다

9월 10일~18일, 미광화랑


서양화가 신성호

40여 년간 추상작업에 몰두해온 신성호 작가의 개인전 'See Abyss'가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미광화랑에서 열렸다. 우리말로 '심연을 보다'라는 뜻을 지닌 이번 전시는 작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연과 문명, 존재에 대해 사유하고 그 과정에서 마주한 깨달음과 성찰을 회화로 풀어낸 자리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100호 두 점을 비롯해 10호부터 80호에 이르는 30여 점의 작품이 선보였다. 특히 10호와 20호 크기의 소품들을 하나의 묶음처럼 구성해 시각적 효과를 확장했다. 또한 작년 두 번의 개인전과 달리 질감을 강조해 질료의 두께감과 질박함을 표현했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되어가는 도중의 그 무엇', '우연과 필연의 묘합'이라고 표현한다. 굵게 던져지는 획과 드로잉적 선은 인간의 삶과 존재를 상징하며, 무상함과 삶의 의지를 암시하는 흔적은 거친 질료와 만나 생명력의 이미지로 확장된다.


잔상2621 _72.5 X 61cm, mixed media, 2026.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되어가는 도중의 그 무엇', '우연과 필연의 묘합'이라고 표현한다. 굵게 던져지는 획과 드로잉적 선은 인간의 삶과 존재를 상징하며, 무상함과 삶의 의지를 암시하는 흔적은 거친 질료와 만나 생명력의 이미지로 확장된다.

동심에서 바라보다

11월 9일~14일, 예이제 갤러리


서양화가 안태존

2023년 대한민국 미술인상 청예작가상 수상, 부산미술대전 서양화 심사위원장을 역임한 안태존 작가의 제12회 개인전이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예이제갤러리에서 열린다. '동심그림에서 천국을 보다'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작가가 오랜 시간 이어온 '동심그림'을 통해 사라져가는 고향의 풍경과 어린 시절의 순수한 기억을 되짚는다.

작가가 바라보는 '동심'은 누구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순수함과 따뜻한 기억에 가깝다.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의 달과 북극성, 어머니를 따라 장에 다녀오던 풍경, 가족이 함께 달빛을 바라보던 순간 등 작가의 기억 속 장면들은 화면 위에서 소박한 고향의 풍경으로 되살아난다.


배꽃 구경 _30호P, oil on canvas.

이를 바탕으로 작가는 다양한 혼합재료를 활용해 거칠고 깊이 있는 마티에르를 형성하고, 아크릴과 유화물감으로 화면을 완성한다. 특히 최소한의 형상에 고향의 정서와 기억을 담아낸 작품은 어린아이에게는 동화적 상상력을, 어른에게는 잊고 있던 유년의 기억을 자연스럽게 불러낸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시선을 따라 관람객 스스로의 '마음속 고향'을 떠올리게 하며, 바쁜 일상 속 잠시 잊었던 그 시절의 풍경과 감정을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자신을 둘러싼 풍경 속에 담아낸 연결과 위안

11월4일~9일, 인사아트 부산갤러리


서양화가 강연희

자신만의 상징적인 기호나 주관적인 색감을 더해 친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의 풍경을 작은 색면으로 그려내는 강연희 작가의 개인전이 11월 4일부터 9일까지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미발표 신작을 비롯해 최근 3년 이내 제작한 캔버스 작품 20여 점과 드로잉 소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강 작가는 이번 전시는 '풍경 : 유연한 경계'를 부제로 하여, 도시와 식물, 섬과 육지, 경계와 연결, 그리고 그 사이에 오가는 작가의 시선에 대한 기록으로 서로 다른 소재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향한다.

대표작 〈연결된 섬〉에서는 영도에서 바라본 오륙도를 통해 이러한 생각을 상징적으로 풀어낸다. 섬에서 다른 섬을 바라보는 시선은 고립된 자아인 동시에 연결을 원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물의 높이에 따라 다섯 개 또는 여섯 개의 섬으로 보이는 오륙도의 특성 역시 연결과 단절을 반복하는 인간의 관계와 닮아 있다. 배와 등대 등 풍경 속 요소들도 관계의 연결과 단절을 상징한다.


연결된 섬 _145cm×112cm, acrylic on canvas, 2026.

익숙하지만 낯선 풍경, 그 안에 숨겨진 관계와 감정을 통해 관람객 각자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하는 이번 전시는 '나'와 '세상' 사이의 유연한 경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붓 끝에 머문 바다와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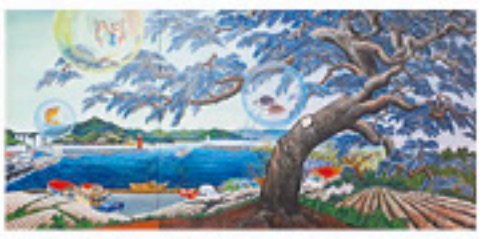
12월1일~6일, 금련산갤러리


민화가 최윤영

부산대학교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최윤영 작가의 개인전이 12월 1일부터 6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부산별곡(別曲)—붓끝에 머문 바다의 삶과 노래'를 부제로 하여, 부산의 바다 풍경과 전통 민화에 담긴 길상과 염원의 도상을 결합한 창작민화 약 45점을 선보인다.

특히 최 작가는 이번 작업에서 기존의 평평한 한지에서 벗어나 굴곡과 켜를 지닌 주름지를 바탕으로 활용하고 아크릴 물감의 농도와 질감을 조절해 표현의 폭을 넓혔다. 깊고 단단한 전통의 채색과 투명하고 가벼운 현대적 요소가 한 화면에서 조화를 이루며, 민화의 정교한 필선과 바림은 작품에 서정적인 흐름을 더한다.

또한, 책거리와 고가구 등 전통적인 도상에


윤슬 넘어 달토끼를 만나다 _300호, 주름한지에 아크릴, 2026.

부산 기장의 항구와 바다, 달빛 등의 풍경을 더하고, 비눗방울과 오방색 띠 등 현대적이고 몽환적인 요소를 함께 배치해 과거와 현재,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화면을 만들어낸다. 이를 통해 일상의 공간 역시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 희망과 안식이 피어나는 '일상의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최 작가는 "전통 민화 속 길상과 염원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적 서사를 전통 민화와 연결하는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현대의 삶과 소통하는 민화의 가능성을 넓혀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기억과 감정의 파편

12월 7~12일 부평아트스페이스


공예가 정옥진

일상의 기억을 새로운 조형언어로 확장하는 공예가 정옥진 작가의 개인전이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한새갤러리에 이어,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부평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현대 사회 속에서 재편되는 여성성의 정체성을 현대 도예의 조형 언어로 심층 탐구하며 이를 공예적 조형언어로 풀어낸 작가의 작업 세계를 만나는 자리로, 도자를 중심으로 절제된 색채와 붕제선의 흔적, 그리고 표면의 질감을 다룬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자수와 붕제선, 꽃잎과 구름 등 익숙한 소재에 개인의 기억과 감정을 덧입혀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만들어낸다. 초기 작업에서 작가는 식기를 주요 소재로 삼았다. 식기는 본래 음식을 담고 사용하는 기능적 사물이지만, 작가에게는 여성의 감각과 기억, 삶의 경험이 축적된 대상으로 확장된다. 특히 꽃과 구름은 정 작가의 작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장식적 패턴이다. 꽃은 피고 지는 자연의 순환성과 함께 기억의 흔적을, 구름은 감정과 기억의 유동성을 담아낸다.


Cloud series_01 _44x44x45cm, ceramic mixedmedia, 2022

최근에는 기존 도자 작업에서 디지털 프린팅을 활용하며 매체의 확장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작가에게 중요한 것은 재료 자체보다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어떻게 변형해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내는가에 있다.

도자에서 디지털 이미지로 매체가 달라져도 기억과 감정, 반복과 변형이라는 작업의 핵심은 지속된다.

고래와 고양이가 떠나는 미지의 여행

12월22일~27일, 금련산갤러리


한국화가 이경미

한국화가 이경미 작가의 개인전이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린다. 2018년 이후, 8년 만에 마련된 이번 개인전은 다양한 종의 고래와 작가가 현재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주요 소재로 구성된 30~35점의 작품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 작가는 밝고 화사하며 때로는 강렬한 색채를 선택해 자신만의 작업세계를 구축해왔다. 수간채색을 바탕으로 밀 작업을 두텁게 올린 뒤 색을 여러 겹 쌓아가는 적층식 채색은 작품에 깊이 있는 색감을 더한다. 하나의 단색처럼 보이는 화면에도 계열색이 반복적으로 쌓이며 다채로운 색의 층을 형성한다.

화폭에 등장하는 고래는 작가가 오래전 가족과 함께 방문했던 고래박물관에서 시작됐다. 이후 온라인을 통해 인간과 고래가 교감하는 모습을 접하면서 고래에 대한 관심이 작업의 모티브로 발전했다. 고래를 그리기 시작한 뒤에는 다양한 종에 대해 공부하며 소재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이러한 관심은 이번 개인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로 확장됐다.


꿈을 향한 그대, 35cm×25cm, 장지에 채색, 2025.

또한 화폭 위에는 분명 고래와 고양이가 보이지만, 작가는 그 너머에 있는 사랑과 자유까지 관람객이 느끼기를 바란다. 고래와 고양이가 함께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에는 거창한 메시지보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작은 사랑과 작은 자유가 담겨 있다.

부산미술 단체를 찾아서 38

「(사)한국창조미술협회」 Since 2021

부산의 경계를 넘어, 창작과 교류의 길을 열다



(사)부산창조미술협회 창립전 도록(왼쪽)과 부산, 광주, 전남 창조미술협회의 주최로 부산예술회관 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영호남교류전 단체사진.

한국 화단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미술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미술인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설립된 한국창조미술협회 부산지회는 서양화와 한국화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이 함께하고 있다. 부산지회의 활동은 2021년 창립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금련산갤러리와 사상갤러리에서 창립전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회원전과 교류전, 국내외 아트페어 및 해외 아트페스티벌 등에 참여하며 활동의 폭을 넓혀 왔다.

2022년에는 제2회 창조미술협회 회원전을 이젤갤러리에서 열었으며, 서울국제호텔아트페어(SIHAF)와 프랑스 파리 아트페스티벌 등에 참여했다. 2023년에는 부산시청 전시실에서 제3회 회원전을 개최하고 롯데호텔 소공동에서 열린 SIHAF 서울국제호텔아트페어, 일본 교토 아트페스티벌 등에 참여했다. 2024년에는 부산시민회관에서 대한민국 창조미술 유명작가 초대전을 개최하고 두바이 호텔 아트페어에도 참가했다.

이처럼 전시활동은 국내와 해외로도 이어지며 창작과 교류의 기반을 확장해가고 있다. 2025년에는 서울 라메르갤러리에서 '대한민국 새해 새 아침전'을 개최했으며, 광주·전남과 부산 창조미술협회가 함께한 제1회 영호남교류전을 부산과 나주에서 진행했다. 이어 독일 베를린 아트페스티벌에도 참여하며 지역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 작가와 작품을 알리는 기회를 만들어갔다. 이 같은 활동은 회원들이 창작에 대한 열정을 지속하고, 보다 다양한 전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국내외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창조미술협회 부산지회는 최영근 지회장을 중심으로 송대호, 조규철 고문, 양효순 부회장, 임영진 사무국장과 유경열, 조혜진, 유순천, 신지원, 최영희, 하온 이사가 단체의 운영을 이끌고 있다. 회원으로는 한국화 부문 박기옥, 박선민, 강나연, 박경희, 서태웅, 강탄공, 서양화 부문 김인기, 문경미, 이미애, 진명순, 박경철, 박진용, 전채돈, 조영제, 허지현, 구민경, 이용국, 선양춘, 박종석 약 30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다. 회원들은 사실화와 추상화, 팝아트는 물론 아크릴과 유화, 한국화의 먹·분채·석채 등 다양한 재료와 표현기법을 통해 각자의 작품세계를 펼치고 있다.

부산지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 가운데 하나는 회원 간, 그리고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류다. 정기전과 교류전은 단순히 작품을 한 공간에 선보이는 자리를 넘어 서로의 작품세계를 이해하고 새로운 작업에 대한 자극을 얻는 기회가 된다. 회원들은 전시를 준비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표현방식과 작업 태도를 공유하며 작가로서의 시야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2025년 진행한 영호남교류전은 이러한 지회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영산강과 낙동강 화합의 물길을 열다'를 주제로 열린 이 전시는 광주지회와 나주지회 작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이해하고 예술적 교감을 나누는 자리였다. 부산과 호남이라는 서로 다른 지역의 작가들이 작품을 매개로 만나면서 지역미술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 유명작가 초대전 역시 부산지회가 지향하는 교류의 의미를 보여준다.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소개함으로써 작가들에게는 새로운 창작의 자극을, 관람객에게는 다양한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회는 앞으로도 지역 안에 머무르기보다 전국 각 지회·지부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전까지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통해 회원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 갈 예정이다.

부산지회가 앞으로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방향은 '관객과 함께하는 전시'다. 작품을 걸고 관람객이 감상하는 정형화된 전시에서 벗어나 관객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미술을 보다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전시를 기획하고자 한다.

다가오는 10월 12일에는 새롭게 문을 여는 약 110평 규모의 부산 사상아트갤러리에서 정기전과 전국 유명작가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 작가들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작품세계를 펼치고, 부산 시민들이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산창조미술협회와 홀트아동복지재단, 피자헛이 함께하는 'Sea & Light Project' 프로젝트는 '바다와 빛'을 주제로 작가와 홀트아동복지재단 소속 아동들이 예술을 매개로 만나는 새로운 콜라보 전시이다. 아이들이 가진 가능성과 빛을 예술을 통해 확장하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나눔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회는 이러한 전시를 통해 미술이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문화가 아니라 누구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창작지원금 등 지역의 문화예술 지원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콜라보레이션과 나눔의 전시를 기획하고, 예술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전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과 전국, 해외로 기반을 다져온 (사)한국창조미술협회 부산지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전시와 교류를 통해 부산미술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예술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창작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

컬렉터 집중분석 – 서른 네 번 째 이야기

"내 이름은 우티스(Outis), 아무도 아닌 자(Nobody)다"

– 『오디세이아』 中에서 –



좌) 『오디세이아』, 박문재 번역, 현대지성. 중) 뱅크시, 〈Love is in the Bin〉. 우) 〈오디세이〉 포스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유명(有名)이 아닌 무명(無名)의 시대

3천 년 전의 이야기가 다시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가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호메로스가 노래했던 한 인간의 귀향 이야기가 거대한 스크린 위에서 되살아났다. 그러나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오디세우스의 모험보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버리는 한 장면이다.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던 오디세우스는 외눈박이 거인 폴뤼페모스와 마주한다. 거인이 이름을 묻자 그는 "내 이름은 우티스(Outis)다"라고 대답한다. 우티스는 '아무도 아닌 자', 즉 Nobody라는 뜻이다. 오디세우스가 그의 눈을 멀게 하자 폴뤼페모스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Nobody가 나를 해치고 있다"는 외침에 아무도 달려오지 않는다. 여기에 기묘한 역설이 있다. 이름을 가진 거대한 존재와 이름을 버린 작은 인간의 대결이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이름을 지움으로써 살아남는다.

참고) 폴뤼페모스(Polyphemus)는 '매우 유명한'이라는 의미다.

인간은 오랫동안 이름을 얻기 위해 살아왔다. 고대 영웅에게 이름은 명예였고, 근대 이후 예술가에게 이름은 작품의 가치를 보증하는 기호가 되었다. 피카소, 뒤샹, 워홀이라는 이름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다. 오늘날에도 SNS의 팔로워와 조회 수, 검색 순위와 알고리즘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다.

그런데 바로 이 시대에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현대미술가 가운데 한 사람인 뱅크시(Banksy)의 얼굴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얼굴 대신 거리의 벽을 선택했다. 작가가 뒤로 물러나자 이미지가 앞으로 나온다. '누가 만들었는가'보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진다.

2018년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뱅크시의 《Girl with Balloon》이 낙찰되는 순간 액자 속 파쇄기가 작동했다. 작품은 찢겨 내려갔지만 죽지 않았다. 《Love is in the Bin, 사랑은 쓰레기통에 있어》라는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다. 예술의 죽음이 새로운 예술의 탄생이 된 것이다. 2021년 이 작품은 다시 경매에 등장하여 1,858만2천 파운드(한화 약 336억 원)에 낙찰되었다.

뱅크시는 자신의 얼굴을 지우고 작품마저 지우려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작가도 작품도 더욱 유명해졌다. 이름을 버린 오디세우스, 얼굴을 버린 뱅크시, 작품마저 죽여버린 예술가. 그들은 사라짐으로써 오히려 더 강하게 존재한다. 여기에서 3천 년 전의 우티스와 오늘날의 뱅크시가 만난다. 오디세우스에게 익명은 생존의 전략이었고, 뱅크시에게 익명은 예술의 전략이다. 두 사람 모두 '나'를 감추는 순간 오히려 더 강력한 존재가 된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이후 인간은 신이 차지했던 자리를 스스로 채우기 시작했다. 근대의 인간은 세계의 중심이 되었고, 예술가 역시 또 하나의 창조자로 신격화되었다. 작품보다 작가의 이름이 앞서고, 이름은 권위와 자본이 되었다.

神의 죽음 이후, 神을 만들고, 스스로 神이 되었던 인간

현대는 익명의 예술을 영접하는 시대

그러나 현대는 다시 그 이름을 지우기 시작한다. 작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저자의 권위를 의심하며 익명의 이미지들이 거리와 인터넷을 떠돈다. 거리의 낙서가 미술관으로 들어오고 이름 없는 이미지 하나가 세계인의 이미지가 된다. 중심과 주변, 유명과 무명의 경계가 흔들리고 있다

어쩌면 현대는 '익명의 예술을 영접하는 시대'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명(無名)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름이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것, 작가의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서 작품이 스스로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노자는 『도덕경』 첫 장에서 "名可名 非常名(명가명 비상명)",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라고 했다. 32장에서는 "道常無名(도상무명)", 도는 언제나 이름이 없다고 말한다. 이름은 존재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존재를 하나의 경계 안에 가둔다. 무명(無名)은 결핍이 아니라, 하나의 이름으로 규정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디세우스의 'Nobody'와 뱅크시의 익명성은 노자의 무명과 만난다.

우리는 다시 오디세우스의 오래된 질문 앞에 선다. "너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는 아무도 아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닌 자'가 되었던 순간 오디세우스는 거대한 폴뤼페모스를 이겼다. 이름을 버림으로써 존재를 지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할 수 있었다. 예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위대한 예술은 어느 순간 작가의 이름을 넘어 스스로 존재한다. 누가 만들었는지를 잊고도 작품 앞에 오래 머물 수 있을 때, 예술은 비로소 이름이라는 경계를 넘어선다.

유명(有名)이 존재를 증명하던 시대에서, 무명(無名)이 새로운 존재의 가능성을 여는 시대. 3천 년 전 오디세우스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때로는 이름을 얻는 것보다 이름을 버리는 것이 더 강하다는 것을.

글: 김성헌(학술평론 위원장)

베일 벗은 부산시립미술관, 약 2년간의 재단장 마치고 재개관

경계를 넘어, 공간의 해체와 4개의 전시를 통해 미래의 미술관을 제안하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바다 높은 물결 위에 있다: 1945–1953' 전시장 전경.



재개관한 부산시립미술관 외관.



'이 모든 어제의 미술관에게' 전시장 전경 사진.

1998년 문을 연 부산시립미술관이 5년간의 준비와 약 2년에 걸친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지난 17일 다시 시민을 맞았다.

개관 이후 28년 동안 약 330개의 전시를 비롯해 예술·문화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부산 미술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미술관은 이번 재개관을 통해 노후한 시설을 고쳐 쓰는 차원을 넘어, 미술관이라는 공간의 의미와 역할을 새롭게 묻는 계기를 마련했다.

총 469억여 원이 투입된 이번 리노베이션에서는 주 출입구 방향 전환을 비롯해 항온·항습 시스템 구축, 수장고 증축, 전시장 통합·개편, 어린이갤러리와 카페 등 관람객 편의 공간 확충, 야외 조각공원 재조성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변화에서 보다 주목할 부분은 면적이나 시설의 확장이 아니다. 기존의 전시실을 기능별로 나누어 사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간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전시장과 어린이갤러리, 휴식 공간과 야외 조각공원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미술관을 하나의 유기적인 환경으로 다시 설계했다는 점이다.

미술관은 이제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전시를 보고, 머물고, 만나고, 생각하는 경험이 교차하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재개관과 함께 선보이는 네 개의 전시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공간을 나누는 대신, 경험을 연결하다

이번 리노베이션의 핵심은 '경계의 해체'다. 새롭게 구성된 부산시립미술관은 내부와 외부, 층과 층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연결하고, 전시 공간 역시 필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인 구조를 갖췄다.

이는 건축적 변화인 동시에 미술관의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이기도 하다. 미술관을 '관람하는 곳'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시와 교육, 연구와 휴식, 시민 참여 등 다양한 활동과 관계가 교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한 것이다.

서진석 부산시립미술관장은 이번 리노베이션의 방향을 '시설 개선과 미래형 미술관으로의 전환, 그리고 문화의 가변성을 수용하는 공간 구축'으로 설명한다. 공간은 더 이상 전시를 담는 배경에 머무르지 않고 미술관의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매개체가 된다.

세계 미술관의 변화 흐름과 부산시립미술관의 방향을 담은 '퓨처 뮤지올로지'

국내외 8개 미술관·기관이 협력한 국제전 '퓨처 뮤지올로지'는 기술과 지식, 생태와 인간의 관계 속에서 미술관의 역할을 묻는다. 전시는 기술, 인식, 생태를 주요 키워드로 삼아 변화하는 환경 속 인간과 자연, 사물과 공간, 관람객의 관계를 다양한 작품으로 살펴본다.

대표적으로 방콕 Khao Yai Art Forest의 큐레토리얼 철학을 담은 〈숨(Breathe)〉(2026)은 전통 한옥의 우물마루에서 출발한 목재 플랫폼을 통해 관람객이 머물고 관계 맺는 공간을 만든다.

요나스 룬드의 〈퍼포먼스 리튜〉는 AI의 지시와 지역 작가들의 수행을 통해 작품의 생산과 유통 구조를 바라보게 하며, 구기정의 〈끝없이 이어지는 매크로 하이브리드 풍경〉(2026)은 70m가 넘는 화면에 전통적인 회화적 감각과 디지털적 상상력이 공존하는 풍경을 펼쳐 보이며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기술의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결국 '퓨처 뮤지올로지'가 제안하는 미래의 미술관은 기술 자체를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기술이 변화시킨 세계 속에서 인간과 사회, 자연과 지식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장소다.

기록되지 않은 시간, 다시 바라보는 부산의 미술사

2층의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바다 높은 물결 위에 있다: 1945–1953'은 광복 직후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의 시간을 다룬다. 〈3·1운동 기념미술전람회〉, 〈해방기념 미술전람회〉, 〈8·15기념 미술전람회〉, 양달석, 오지호, 이쾌대, 문신 등의 작품 260여 점과 아카이브 자료 460여 점을 통해 격변기 한국 사회와 미술의 관계를 되짚는다.

전람회 기록과 시집, 리플렛 등 다양한 자료는 당시 미술의 풍경을 복원하고, 특히 해방기 부산에서 개최된 미술전람회 자료는 부산 1세대 화가들의 활동을 살펴보게 한다. 작품과 기록을 함께 배치한 전시는 부산의 미술사를 한국 현대사의 흐름 속에 위치시키며, 지역 미술이 사회의 변화와 함께 움직여왔음을 보여준다.

미술관도 하나의 '작품'이 된다

프로젝트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 모든 어제의 미술관에게'는 부산시립미술관의 건립과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도면과 행정 문서, 건축적 흔적을 통해 미술관의 변화를 추적한다.

그라운드아키텍츠를 비롯한 작가 5명의 시선을 통해 미술관의 건축과 기록을 다시 읽으며, 미술관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아카이브이자 예술적 대상으로 바라본다. 작품을 전시하던 공간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전시의 대상으로 삼는 셈이다.

어린이에게 미술관은 무엇이 되는가

지하 1층 어린이갤러리에서 선보이는 '안전기지'는 어린이의 감각을 통해 미술관의 또다른 가능성을 살펴본다. 전시는 애착이론에서 출발해 어린이에게 미술관이 학습이나 관람의 장소를 넘어 편안하게 머물고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작품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보다 몸으로 만지고, 숨고, 움직이고, 놀이하는 경험을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기존의 어린이 전시와 다른 접근을 보여준다.

건축가 네임리스의 구조물은 동굴과 오두막처럼 몸을 감싸는 형태로 어린이가 스스로 들어가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방&리의 작업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환경을 관계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이를 통해 미술관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경험하는 장소로 확장한다.

다시 열린 미술관, 앞으로의 시간을 향하다

부산시립미술관의 이번 재개관은 지난 28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술관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네 개의 전시는 서로 다른 시대와 주제를 다루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만난다. '퓨처 뮤지올로지'는 기술과 생태 속에서 미술관의 미래를 묻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바다 높은 물결 위에 있다: 1945–1953'은 역사를 통해 현재를 바라본다. '이 모든 어제의 미술관에게'는 미술관의 기억과 건축적 시간을 되짚고, '안전기지'는 어린이의 감각으로 미술관의 미래를 상상한다.

결국 이번 재개관이 보여주는 것은 새로워진 시설만이 아니다. 작품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장소에서 벗어나 도시와 시민, 기술과 자연, 과거와 미래가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의 변화다.

28년의 시간을 지나 다시 문을 연 부산시립미술관.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시선, 작가의 작품과 시민의 경험이 새롭게 열린 공간에서 만나며 부산시립미술관의 다음 시간이 펼쳐질 것이다.

2026 제4차 이사회 개최



(사)부산미술협회 2026년도 제4차 이사회가 지난 9월 18일 오후 6시 30분 부산예술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부산미술협회 제4차 이사회가 지난 9월 18일 오후 6시 30분 부산예술회관 회의실 4층에서 열렸다. 이번 이사회의 안건은 이사회 임원 65명 가운데 39명이 참석하여 심의·의결되었다.

보고 사항으로는 △제52회 부산미술대전 서예, 문인화 결과 보고 △사업 진행현황_(1)제46회 부산미술제_(2)제15회 BFAA국제아트페어_(3)제64회 부산예술제「해외자매도시미술교류전&부산미술대작전」 진행보고_(4)제52회 부산미술대전 한국화의 9개분과 1차 및 2차 공모 일정 보고 △(사)부산미술협회와 부산일보사 80주년 기념 「2026 우리집 미술관 프로젝트」 진행보고가 있었다.

이번 이사회 안건으로는 ▲안건1_부산!미술로 꿈을 꾸게하다 전 참여 청년작가 신입회원 인준(안) ▲안건2_신입회원 인준 심의 및 전과, 전입, 전출, 장애, 제명 건이 논의되었다.

기타토의로는 제32대 임원 이사회 출석현황, 부산미술협회 주최·주관사업의 작품판매시 작품가의 배분비율 규정, 2027년 부산갤러리, 금련산갤러리, 부평아트스페이스 대관현황에 대한 의견을 다루었다.

이성재 작가, 제22회 송혜수 미술상 수상기념전 열려



9월 8일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린 제22회 송혜수미술상 기념전에서 이성재 작가가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 제22회 송혜수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성재 작가의 수상기념전이 9월 8일부터 13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렸다.

9월 8일 오후 5시에 열린 시상식에는 (사)부산미술협회 고문과 원로, 이사진을 비롯해 협회 회원 및 가족, 미술계 관계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수상을 축하했다.

시상식에서는 (사)부산미술협회 최장락 이사장이 이 작가에게 지원금 500만 원을 포함한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전달하며 수상을 축하했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행위 반복, 우연과 필연을 부제로 한 대표작품 100호 30여점을 전시했다.

송혜수미술상은 고(故) 송혜수 화백의 작가정신을 기리고 지역 미술인의 창작 의욕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미술상이다. 2005년 송혜수 화백의 타계 이후 제정됐으며, (사)부산미술협회는 매년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쳐온 작가를 선정해 시상하고 수상기념전을 마련하고 있다.

이성재 작가는 "제22회 송혜수 미술상을 수상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부산에서 60 여 년을 꾸준히 두박이로 작품생활에 매진한 결과가 오늘의 결실로 이어진 것 같다. 앞으로 더 많은 작가님들의 열정적인 작업으로 선생님의 고결한 뜻이 더욱 빛나길 바라면서 수상 소감에 가름한다"라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독창적인 작업세계를 구축해온 이 작가는 정해진 규칙과 질서에 머무르기보다 점과 선, 면이 자유롭게 교차하고 이어지며 만들어내는 예측할 수 없는 흐름에 주목한다. 반복되는 선과 색의 움직임 속에서 우연성과 자율성을 끌어내고, 이를 통해 화면 안에 자신만의 조형적 언어를 만들어왔다.

오랜 시간 이어온 창작과 조형세계는 이번 송혜수미술상 수상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예술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제25회 오늘의 작가상 본상·청년작가상 수상기념전



7월 27일 부산시청 제2, 3전시실에서 열린 제25회 오늘의 작가상, 청년작가상 수상기념전에서 김용철, 이원숙 작가가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부산미술협회가 주최하고 (사)부산미술협회 오늘의 작가상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5회 오늘의 작가상, 청년작가상 수상기념전이 지난 7월 27일 오후 5시 부산시청 제2·3전시실에서 열렸다.

수상기념전 시상식에서는 (사)부산미술협회 최장락 이사장이 본상 수상자 김용철 작가에게 시상금 500만원과 청년작가상 수상자 이원숙 작가에게 400만원을 전달했다.

본상을 수상한 공예부문 김 작가는 목공예와 칠공예로 이루어진 작품, 그리고 가구와 생활 소품 등 30여점을 제2전시실에서 선보였다.

김 작가는 "공예는 자연(自然)이 주는 자재(資材)에서 출발한다. 자재가 없으면 그 땅에 공예는 없다. 나에게 내려주신 자재는 나무와 옻으로 천연(天然)이 내려주신 선물이다. 나는 자연과 함께 그 가치를 공유하면서 작업을 하며, 벌써 목공예전을 35회 가졌다. 계속해서 생명이 깃든 한국적이고 쓰임 있는 새롭게 창작한 작품으로 만들고 발표하고 공유하며 마지막 삶을 불태우고 싶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청년작가상을 수상한 이 작가는 대작과 소품을 포함한 50여점의 작품을 제3전시실에서 전시했다.

이 작가는 "이번 수상은 오랜 시간 묵묵히 작업해 온 과정에 대한 격려이자 큰 감사의 순간으로 다가온다. 작가의 길은 때로는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한 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외로운 여정이지만, 이러한 수상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앞으로도 판화가 지닌 물리적, 형식적 한계를 넘어서는 대형 작업에 도전하고자 한다. 또한 후배작가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선배작가들과는 함께 성장하는 동료로서 좋은 영향을 나누는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전시는 공예와 판화 분야 수상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자리로, 각기 다른 재료와 매체를 통해 자신만의 조형언어를 구축해온 두 작가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며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제64회 부산예술제 해외자매도시미술교류전 개최

10월19일~24일, 부산시청 전시실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사)부산미술협회가 주관하며 한·중·일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아시아 현대미술의 다양한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제64회 부산예술제 해외자매도시 미술교류전&부산미술대작전'이 오는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부산광역시청 제1·2·3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아시아 현대미술을 향유(享有)하다'를 주제로 하여,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37명(정효순, 양호정, 우신자, 최광규, 김문정, 김미옥, 김연진, 김종호, 김충진, 류종필, 문명숙, 박대련, 손영미, 이동욱, 이영옥, 이진희, 이충길, 황종환, 문병탁, 박주현, 전보미, 김재훈, 김창희, 박수한, 하승연, 곽정래, 장정희, 도연옥, 부인자, 김민지, 홍현숙, 김동순, 임종옥, 조혜종, 배기현, 정상지, 김영희)의 작가와 중국작가 18명, 일본작가 2명으로 총 57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회화와 조각, 판화, 공예, 서예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각국 작가들이 동시대의 사회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를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10월 19일 오후 5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내작가와 해외자매도시 2개국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며, 지역과 국가를 넘어 예술로 소통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예술적 경험을 가진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회화와 조각, 판화, 공예, 서예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각국 작가들이 동시대의 사회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를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해외 작가들은 30호 내외의 평면 작품과 실내 전시가 가능한 입체 작품을 선보이고, 부산지역 작가들은 100호 규모의 평면 작품과 비교적 큰 규모의 입체 작품을 출품해 작품의 형식과 규모에서도 폭넓은 구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청 제1, 2, 3전시실에서 열린 '제63회 해외자매도시교류전&부산미술대작전' 개막식 기념 단체사진.

2026 당대 한·중 국화 교류展 개최

동서대 공자아카데미,
중국 산동대와 연계해
한·중 작가 104점 전시



부산시청 제2, 3전시실에서 열린 2025 당대 한중서화 교류전 오픈식에서 공개 시연을 하고있다.

동서대학교 공자아카데미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사)부산미술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중국 산동대학교 예술대학이 협력하는 '당대 한·중 국화 교류전(동서대 공자아카데미)'이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중국 산동대학교 내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한국과 중국의 작가들이 전통회화를 매개로 서로의 예술적 시각을 나누고, 양국 간 문화예술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류전은 한국과 중국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며 양국의 전통미술이 지닌 고유한 조형성과 현대적 변화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자리다.

특히 서예와 수묵, 채색 등 다양한 표현을 통해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발전해온 흐름을 비교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번 교류전에는 한국작가 52명, 중국 작가 45명 등 총 97명이 참여하고, 50x200cm 이내 규격의 한국화, 서예, 문인화로 이루어진 족자작품을 전시해 양국 간 문화적 교류와 소통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부산미술협회는 동서아카데미와 중국 산동대학교와 협력하며 양국 간 문화예술의 가교를 잇는 역할을 해왔다.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바탕으로 양국의 작가들이 저마다의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을 통해 전통의 계승과 현대적 변주가 만나는 지점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될 예정이다.



부산시청제2, 3전시실에서 열린 '2025 당대 한중서화 교류전' 단체 기념사진

(사)부산미술협회, 2026 제52회 부산미술대전 서예·문인화 입상자 발표

서예·문인화 총 809점 출품,
입상작 429점 선정
서예 부문 대상 '김상지'
문인화 부문 대상 '정병철'


8월 8일 금정중학교 명정관에서 열린 제52회 부산미술대전 휘호심사 현장 .

(사)부산미술협회가 주최하고 부산미술대전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2회 부산미술대전 서예, 문인화 부문 심사가 8월 5일과 6일에 금정중학교 명정관에서 서예, 문인화 순으로 양일 간 각각 진행되었다. 작품심사에 이어 8월 7일에는 작품문장 확인을 위한 문장심사가 부산예술회관 4층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8월 8일에는 특선 이상의 출품자 휘호심사를 거쳐, 서예 부문 김상지의 전예서가, 문인화 부문은 정병철의 '매화'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제52회 부산미술대전 서예·문인화 부문은 지난 6월 1일 원서 교부를 시작해 8월 3일 접수를 마감했다. 올해 서예 부문에는 한문·한글·캘리그라피·서각을 포함해 총 519점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239점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문인화 부문은 총 290점이 출품돼 150점이 입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서예·문인화 부문은 전통 서예와 문인화의 맥을 잇는 동시에 변화하는 예술 환경에 발맞춘 운영으로 전국 작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도 이어지며, 부산 서예·문인화계의 활발한 창작 활동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심사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위원의 개별 심사점수로 입상작을 선정하였으며, 입선작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우수상 및 대상은 심사위원들의 최다 득표로 결정되었으며, 심사 전 과정은 실시간 영상으로 녹화하여 공개 심사의 원칙을 적용했다. 올해 심사는 부산시민공원 백산홀의 내부 수리 및 리모델링에 따라 금정중학교 명정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장소가 변경된 가운데서도 체계적인 운영규정에 따른 심사가 이루어졌다.

제52회 부산미술대전 운영위원회에서 서예부문 심사위원으로 한문 12명, 한글3명, 캘리그라피3명, 서각1명, 문장심사 2명으로 총 21명을 위촉하였다. 총심사위원장은 박다두가 맡았으며, 한문심사위원장은 이종민, 한글심사위원장으로는 김후분이 위촉되었다. 문인화 부문 심사위원으로는 외부 심사위원 1명(광주지회)을 포함해 총 8명의 심사위원이 위촉되었으며, 심사위원장으로는 주명옥이 위촉되었다.

서예 부문 박다두 총심사위원장은 "한문의 해서와 예서에서 수작이 눈에 다소 띄었으며, 대상작은 자신만의 서풍을 자연스럽게 구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고, 문인화부문 주명옥 심사위원장은 "대상작을 비롯한 특별상작들은 필세와 필묵, 화제와 글씨의 조화를 고루 갖춰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출품해주신 모든 작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소감과 심사평을 전했다.


문인화부문 대상 정병철 '매화'(왼쪽)과 서예부문 대상 김상지 작품.

서예부문 입상작 전시는 12월 8일(화)부터 12월 12일(토)까지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리며, 문인화부문 입상작은 11월 30일(월)부터 12월 5일(토)까지 부산시청 2층 전시실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제52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심사결과

■서예부문

△대상 김상지(전예서)

〈한문〉 △우수상(2명) 해서부문 이윤환, 판본부문 장혁진 △특별상(3명) 행초서부문 김성목, 김영효, 전예서부문 김영효 △특선 고수형, 김경희, 박광서, 박무용, 박영민, 박외숙, 박용수, 성경, 손창호, 신종호, 이수진, 이진환, 정두남, 정윤숙, 정태겸, 조규정, 최도경, 최연욱, 최태언, 허부룡, 허혜진, 홍안희, 황귀순

〈한글〉 △우수상 장혁진 △특선 김규리, 류미영, 윤진영, 이선지, 장상수

■문인화부문

△대상 정병철 △우수상 변경숙 △특별상 강미숙 △특선 강대순, 강신구, 김경심, 김경옥, 김담, 김민성, 김숙경, 김종갑, 박재형, 서지현, 서진희, 설진희, 오지원, 이명주, 이미영, 이윤수, 이지숙, 이혜숙, 장지선, 황미경

동시대 미술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특별전

〈이것은 개념미술이 〈아니)다〉와 〈이것이 개념미술이다〉 사이에서

주목할 전시 – 다른 도시의 미술
이 코너는 다른 도시에서 일어나는 미술의 흐름을 읽고,그 움직임을 부산 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질문으로 이어 보려는 하나의 제안이다.

서울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미술인이라면 올여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이것은 개념미술이 〈아니)다〉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주최하여 2026년 6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서울관 지하1층 6·7전시실과 1층 미술관마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공성훈, 곽덕준, 김구림, 김범,김순기, 김용익, 박이소, 성능경, 안규철, 이건용, 이승택, 정서영 등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28명이 참여하며, 작품과 아카이브를 포함해 14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전시 제목은 다소 낯설다. – 〈이것은 개념미술이 〈아니)다〉 –

마치 스스로를 부정하는 듯한 제목이다. 그러나 바로 이 모순이 전시의 핵심이기도 하다. 개념미술은 일반적으로 작품의 외형보다 아이디어와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번 전시에서 개념미술을 하나의 고정된 장르로 설명하기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현대미술이 어떻게 안어와 개념, 과정과 맥락을 통해 세계를 사유해 왔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전시가 열리기 두 달 전, 갤러리신라 서울에서 〈이것이 개념미술이다〉라는 전시가 개최되었다는 사실이다. 갤러리신라는 국립현대미술관전시에 대한 일종의 '답가(答歌)'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공공미술관이 바라보는 개념미술과 상업갤러리가 바라보는 개념미술의 차이를 하나의 전시로 풀어냈다.

결과적으로 서울에서는 올해 봄과 여름 사이, '개념미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둘러싼 흥미로운 담론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장면은 단순한 전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 미술계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며, 동시대 예술이 어떤 방향으로 질문을 확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이것이 개념미술이다"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이것은 개념미술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마치 서로 다른 입장이 하나의 대화를 이어가는 듯한 풍경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사실 1960년대 서구 개념미술의 등장과도 연결된다. 조셉 코수스, 로버트 배리, 더글러스 휴블러, 로렌스 와이너 등은 아름다운 그림이나 조각보다 생각과 개념 자체를 예술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그들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보다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당시와 조금 다르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이것은 개념미술이 〈아니)다〉는 개념미술 자체를 소개하는 전시가 아니다. 오히려 한국 현대미술이 지난 반세기 동안 어떻게 '개념적으로 사고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전시에 가깝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을 보면 그 의도가 더욱 분명해진다. 김구림, 이건용, 성능경, 이승택 같은 실험미술 세대에서부터 김용익, 박이소, 안규철, 김범, 정서영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미술의 중요한 흐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을 모두 개념미술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히 개념적이다. 이 지점에서 전시 제목의 괄호가 의미를 갖는다. '개념미술'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다양하지만, 그렇다고 개념적 사고를 빼고 설명할 수도 없는 작업들인 것이다.

전시는 '언어·논리·행위'사물과 언어', '지도와 측정'기호의 조정자들'이라는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화냐 조각이냐가 아니다.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태도, 현실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방법, 그리고 기호와 의미를 재구성하는 사고 자체가 전시의 중심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시는 개념미술의 역사를 설명하는 전시라기보다 한국 현대미술의 '사유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에 가깝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흐름이 미술계 안에서 하나의 담론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람자는 그 사이에서 다시 질문하게 된다. 결국 질문은 개념미술을 넘어 오늘날 예술은 무엇인가에 이르게 된다. 과거의 미술이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다면, 오늘날의 미술은 오히려 질문을 만들어내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정답보다 문제 제기가 중요해지고, 형식보다 태도가 중요해지며,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진다.

이건용의 1970년대 작업이 지금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의 작업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린다는 행위는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었다. 작품은 하나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고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된다.

부산의 작가들에게도 이러한 흐름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우리는 종종 회화와 조각, 한국화와 서양화, 구상과 추상같은 형식적 구분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동시대 미술은 점차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무엇을 만들었는가? 보다, 왜 그것을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이다. 물론 모든 작가가 개념미술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작업이 어떤 문제의식 위에 서 있는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것은 개념미술이 〈아니)다 포스터.

오늘날의 미술은 작품을 만드는 일과 생각하는 일을 분리하지 않는다. 〈이것이 개념미술이다〉와 〈이것은 개념미술이 〈아니)다〉 사이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개념미술은 더 이상 하나의 장르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 동시대 미술의 공기처럼 스며들어 있다. 그리고 그 공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동시대 미술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쩌면 그 답은 특정한 양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스스로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태도 속에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글 : 김성현(학술평론 위원장)

Close Up 40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제14회 최우수 작가



청년작가 윤현지

각자의 시간



시민공원로 73 _Hanji on canvas, 193.9x112.1cm, 2026.

우리는 각기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가지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시간표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곤 한다. 특정한 시기에 요구되는 역할과 성취는 자연스럽게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그 과정에서 주변의 변화와 자신의 현재를 비교하며 조급함을 느끼기도 한다. 나 역시 타인의 속도를 의식하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왔고, 쉬는 순간에도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떠올리며 아무런 목적 없이 보내는 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

그러던 중 각자의 삶에는 서로 다른 환경과 과정이 존재하는데도 왜 우리는 같은 기준으로 삶의 속도를 판단하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 질문은 내가 '쉼'과 '여유'를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나에게 필요한 쉼은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기준과 주변의 속도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고 나에게 맞는 리듬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에서 작품 속에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화면을 가득 채운 무성한 잎과 풀은 인물을 감싸며 현실의 흐름과 일정한 거리를 둔 공간을 형성한다. 그 안의 인물들은 어디론가 나아가기 위해 서두르기보다 책을 읽고, 음식을 나누고, 가만히 앉아 주변을 바라본다. 햇빛과 바람을 느끼거나 생각에 잠기는 평범한 순간들을 통해 특별한 목적이나 성과가 없어도 그 시간 자체에 머물 수 있는 모습을 담아내고자 한다.

작업은 한지를 손으로 직접 찢어 작은 조각을 만들고 이를 겹겹이 쌓아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손의 힘과 방향에 따라 한지는 매번 다른 형태와 결을 만들어내며, 서로 다른 조각들이 겹쳐 지면서 탁백한 잎과 풀,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풍경으로 완성된다. 정해진 형태로 재단하는 대신 손으로 찢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불규칙한 경계와 우연한 결을 그대로 활용한다.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는 한지의 성질과 서로 다른 조각들이 하나의 화면을 이루는 과정은 정해진 기분보다 각자의 방식과 시간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나의 태도와 맞닿아 있다.

나에게 이 작업은 이미 얻은 평온이나 치유를 기록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에서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쉼과 여유를 화면 속에 먼저 만들어보는 일에 가깝다. 작품 속 인물들은 내가 바라는 시간을 대신 살아가는 존재이자 앞으로 지향하고 싶은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삶의 방식은 아니며, 때로는 한곳에 머물러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순간 역시 삶의 중요한 일부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 2025 계명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 2025 인천아트쇼, 송도컨벤시아, 인천
- 2025 BAMA(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BEXCO, 부산
- 2024 송강미술관 작품 소장, 안동
- 2024 개인전 《green steps》, 극제미술관, 대구아트페어 4회
- 2025 BAMA 제 14회 부산 국제 화랑아트페어국제미술관, 대구

Close Up 41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제14회 최우수 작가



청년작가 이루나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



Love is _72.7 x 60.6cm, Pigment Powder on Korean Paper, 2025.

나는 사랑을 그린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고 완전한 감정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서 드러나는 결핍과 상처, 가까워지고 싶지만 끝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사이의 거리를 오래 바라본다. 같은 장면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진심으로 건넨 말이 상대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관계는 우리를 살게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곳을 아프게 한다. 그 모순이 내가 계속 사람과 사랑을 그리는 이유다.

인간은 혼자서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손에 기대어 살아가고, 성장한 뒤에도 타인의 눈빛과 말, 곁을 내어주는 시간 속에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살아갈 마음은 대개 다른 사람에게서 온다. 나를 기다리는 한 사람, 오늘의 안부를 묻는 한마디, 쉽게 판단하지 않고 곁에 머무는 태도가 하루를 견디게 한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하다는 말은 약함의 고백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가장 솔직한 인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상대의 상처를 대신 느낄 수 없고, 그 사람이 지니온 모든 시간을 알 수도 없다. 나의 작업은 그 한계에서 시작한다. "상처를 확인하는 손에도 상처가 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 내민 손 역시 결핍을 지닌 손이며, 서로를 안으려는 두 사람 모두 불완전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손을 내민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닿고 싶기 때문이다.

화면 속 인물들은 달리고, 흔들리고, 서로를 향해 몸을 기울이거나 겨우 맞닿는다. 때로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떨어져 보인다. 이 움직임은 사랑 속에서 살아보려는 인간의 몸짓이다. 개인의 기억과 상상, 사랑을 향한 그리움에서 출발한 장면들이지만, 그것은 한 관계에만 머물지 않는다. 연인과 가족, 친구, 낯선 타인까지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려 했던 모든 순간으로 확장된다. 화면 사이의 여백과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선에는 관계가 가진 불안과 희망을 함께 담는다.

내가 말하는 사랑은 낭만적인 감정에만 머물지 않는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하루를 궁금해 하는 일이고, 그의 다름을 성급히 틀렸다고 부르지 않는 일이다. 상처를 없애주지 못하더라도 오래 바라봐주는 것, 외로운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는 것, 쉽게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다. 거창한 구원이 아니어도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잠시 머무는 일은 한 생을 붙잡을 수 있다.

사랑을 말하는 일은 어쩌면 순진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랑이 세상을 단번에 바꾸는 해답이라 믿어서 그리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린다. 그림 앞에 선 누군가가 잠시 타인의 상처를 상상하고, 자신의 마음에 남아 있는 그리움을 들여다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끝내 외면하지 않는 작은 용기를 떠올렸으면 한다.

- 2024 신라대학교 조형미술전공 졸업
- 개인전 1회 2024 리빈갤러리 초대전
- 2024 인사아트센터 'New Wave' 초대전
- 2023 제12회 BFAA 'New Wave' 최우수상
- 2023 부산미술대전 특선
- 아트페어 4회

Close Up 42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제14회 최우수 작가



청년작가 조하얀

머무름의 풍경, 현실과 맞닿은 자연적 이상향



이상향은 가까이에 있다 _140 × 240 × 135mm, copper, brass, 925 silver, hand crank music box mechanism -over the rainbow, 2024.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긴장과 치열한 경쟁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숨 가쁜 일상 속에서 온전한 안식은 늘 뒤로 미뤄지고, 마땅히 누려야 할 쉼을 유예한 채 하루를 버텨내곤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향은 대개 손에 닿지 않는 먼 곳이자, 고단한 현실을 잠시 잊기 위해 도망치는 도피처로 상상된다. 하지만 작가가 시각화하고자 하는 이상향은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허구의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곁에 실재하고 있는 자연 속에서 감각되는 온전한 안식처이자, 지친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채워 넣는 현실적인 쉼의 공간이다.

이러한 시선은 작가의 고유한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오랜 시간 발레를 전공하며 수없이 〈백조의 호수〉를 연습했다. 백조의 유려한 몸짓과 형상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그 존재에 깊이 스며들었으나, 예기치 않은 부상으로 인해 무용수의 길을 멈추어야 했다. 신체를 통한 움직임은 중단되었지만, 내면에 깊게 각인된 '백조라는 존재에 대한 이입은 조형 예술을 만난 후 작업의 중심 모티프로 이어졌다.

이후 작업은 인위적인 신체 표현을 넘어, 자연 속에 무위(無爲)하게 머무는 백조의 상태로 전환되었다. 작가가 바라보는 쉼은 어떠한 목적이나 인위적인 의도 없이 머무는 '무위'의 순간이다.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버드나무, 뺨을 스치는 바람, 그리고 잔잔하게 흐르는 물결 속에서 백조는 그저 고요히 존재한다. 버드나무와 물, 그리고 백조는 현실과 맞닿아 있는 자연적 이상향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이미 우리 곁에 존재했으나 미처 깨닫지 못했던 평온한 쉼의 풍경을 환기한다.

작가는 이러한 자연적 이상향을 단순히 시각적인 형상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감상자가 작품과 교감할 수 있는 기능적 장치로 확장해 조화롭게 연결 짓고 있다. 실제 백조가 물 위를 유영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잔잔한 호수를 은유한 거울 위를 노니는 오르골 장치를 제작했다. 또한 숲길을 거닐다 보면 옷깃에 스치며 자연스레 몸에 닿는 나뭇잎처럼, 착용을 통해 자연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의 경험을 선사하는 브로차를 선보인다. 바쁜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친 풍경 속 작은 나뭇가지처럼, 관람자가 직접 손으로 태엽을 돌려야만 맑은 소리를 들려주는 수동 오르골은 우리가 잊고 있던 자연의 감각을 깨워준다. 나아가 버드나무 풍경이 섬세하게 그려진 거울 면이 무한히 반사되어 마치 관람자가 자연 속 한가운데로 들어간 듯한 신비로운 공감각을 자아내는 만화경 등, 금속 공예의 조형성과 인터랙티브한 기계적 메커니즘을 융합하여 이상향의 감각을 손에 잡히는 경험으로 건네고자 한다.

결국 작가의 작업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도피가 아닌, 내면을 온전히 채우는 '회복으로서의 쉼'을 이야기한다. 무위의 자연 속에서 비로소 되살아나는 감각,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에너지를 전하고자 한다. 작품을 마주하는 모든 이들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진정한 쉼과 평온을 마음 깊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 2024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학과 금속조형전공 졸업, 미술학 석사
- 2025 《숨:BREATH 展》, 화승그룹 본사
- 2024 《현대공예 발언(發言) 展》, 서울인사아트 부산갤러리(중로구)
2024 《조하얀 첫 번째 개인전》, 수영구생활문화센터 바다갤러리

경계를 넘나드는 신묘한 존재

Close Up 43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제14회 우수 작가



청년작가 만재



도깨비 _200×485cm, Acrylic on Canvas, 2024.

만재의 도깨비 연작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맞닿는 순간을 회화적으로 탐구한다. 전통 설화와 민담에 등장하는 도깨비는 신적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함께 품은 매개적 존재이다. 작가에게 도깨비는 괴이한 존재이면서도 보호적 존재이고, 혼돈의 이미지면서도 새로운 질서를 여는 존재이다. 작가는 이러한 양가적 성격을 바탕으로 낯설고 두려우면서도 매혹적인 감각, 곧 신묘(神妙)의 미적 경험을 화면 안에 구현한다.

작품을 구성하는 만곡의 선과 영기문적 패턴, 고채도의 색채, 과잉의 밀도와 비물리적 명암은 하나의 기운처럼 흐르며 신묘한 공간을 형성한다. 이 공간에서 인간, 동물, 식물, 기계, 건축적 형상은 서로 뒤섞이고 변형되며 현실과 초월의 경계를 흐린다.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도깨비와 여러 형상들은 하나의 고정된 서사를 이루기보다 서로 관계를 맺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낸다. 이를 통해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각, 현실과 상상의 층위가 하나의 화면 안에서 중첩되고 교차하는 독특한 시공간을 구축한다. 화면 곳곳을 점유하는 인간과 동물, 식물과 기물은 각자의 경계를 벗어나 서로의 형상 속으로 스며들고, 문양과 장식적인 요소들은 이들의 관계를 연결하며 화면의 조형적 밀도를 더욱 높인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이미지와 기호가 충돌하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화면은 하나의 완결된 세계라기보다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주되는 유동적인 장으로 작동한다. 한국적 상상력 속에 잠재된 신비롭고 생동하는 감각을 현대 회화의 언어로 다시 불러내려는 작가적 시도는 익숙한 이미지의 질서를 해체하고, 현실과 상상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낯선 감각과 무한한 상상의 가능성을 펼쳐 보인다.

-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회화전공 박사수료
- 2025 제 4회, 도깨비-신묘한 세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2관 1실 (서울)
- 2025 제 3회, L' ESPIRIT DE L' INVISIBLE, Atelier Gustave (파리)
- 2024 FOCUS LONDON 2024, 사치갤러리 (런던)
- 2024 FOCUS NEW YORK 2024, 548 West 22nd Street (뉴욕)

나무에 새긴 시간

Close Up 44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제14회 우수 작가



청년작가 이예지



시간 속의 흔적_A Trace in Time 85×305×9cm, Japanese Black Clay, Mixed Media, High-Fired Oxidation Firing, 2024.

이예지 작가는 불안과 긴장, 멈춰 있는 듯한 시간 속에서 경험한 감정과 내면의 변화를 나무의 형상과 물성을 통해 풀어낸다.

작가에게 나무는 오랜 시간 한자리에 머물며 계절과 환경의 변화를 견디내는 존재다. 나이테와 껍질, 균열에는 지나온 시간이 축적되어 있으며, 작품은 나무의 표면에서 발견되는 굴곡과 균열, 겹겹이 쌓인 껍질의 형태를 연상시킨다. 불규칙하게 이어지는 굴곡과 거친 표면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흔적을 떠올리게 하며, 정제되지 않은 형태는 작품에 생생한 긴장감을 더한다. 특히 흙을 빚어 형태를 만들고 고온의 소성을 거치는 과정에서 손의 움직임과 불의 작용이 더해지며, 표면에는 재료가 변화해 온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흙의 물성과 소성의 흔적은 작품 안에 시간의 층위를 형성하며 나무의 표면이 지닌 질감을 새롭게 해석한다. 검은색을 중심으로 한 색조와 거칠게 드러난 표면은 작품에 무게감과 긴장감을 부여한다. 그러나 그 표면에 새겨진 균열과 굴곡은 단순한 불안의 표현에 머물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며 겹쳐진 흔적들은 지나온 감정과 경험을 품은 채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나무가 환경을 견디며 자신의 표면에 흔적을 남기듯, 작가는 삶에서 마주한 불안과 상처 역시 현재의 자신을 이루는 하나의 층위가 될 수 있다고 바라본다. 나무의 표면에 새겨진 균열이 오랜 시간을 견디온 흔적이 되는 것처럼, 삶의 상처 역시 현재의 자신을 형성한다. 작가는 흙이라는 물질에 이러한 감정과 경험을 새겨 넣으며, 상처를 지우기보다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여준다. 〈시간 속의 흔적〉은 시간이 남긴 흔적을 새로운 성장의 언어로 바라보며, 견디고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존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 2026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석사 수료
- 2024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공예부문 대상 수상
- 2024. 〈경유지〉, 동아대학교 한림갤러리_6층
- 2025. 12, 〈길 위에 만나는 찰나의 아름다움〉(갤러리 길 초대전), 갤러리 길
- 2024 ~ 2026 부등 미술대전 입선 3회 수상
- 2026. 03, 〈풍성하게 빛나는〉(부산지방법원 초대전), 부산지방법원석당미술관 (부산)

사물에 깃든 호흡

Close Up 45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제14회 우수 작가



청년작가 이내강



호흡 _1×1×1m, 우산, 기계 장치, 2026.

이내강 작가는 일상에서 쉽게 마주하는 사물과 기계 장치를 결합하고 움직임을 부여함으로써, 익숙한 사물에 새로운 생명감을 부여하고자 한다. 반복적인 움직임과 변화하는 형태를 통해 사물과 생명, 기능과 감각 사이의 경계를 탐구하며,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풍경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사물에 깃든 움직임을 통해 생명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탐구한다. 대표작품 〈호흡〉 작품의 주된 재료는 우산이며, 작가는 투명한 우산과 기계 장치를 결합하여 호흡하는 동작을 만들어 냈다. 펼쳐지고 접히는 우산의 구조와 리듬감은 마치 생명체가 숨을 쉬고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모습과 닮아 있으며, 이를 통해 사물과 생명 사이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허문다.

기계에 의해 반복되는 우산의 움직임은 정적인 조형물에 시간성을 부여한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우산은 더 이상 비를 막는 가능적 도구로만 존재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조형적 주체로 전환된다.

여러 개의 우산이 공간에 놓일 때에는 각각의 움직임이 독립적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서로 호응하며 하나의 리듬을 형성한다. 개별적인 사물의 움직임이 공간 전체의 흐름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작가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호흡의 리듬을 인간이 만든 사물과 기계의 언어로 옮겨온다. 생명이 유기적인 신체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과 리듬,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감각 속에서도 새롭게 인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자연의 생명과 인간이 만든 생활 용품 사이의 경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 온 '살아있음'의 감각과 존재의 방식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 2018년 청운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학사 졸업,
- 2022년 원난예술대학교 조소과 석사 졸업,
-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조소전공 박사과정 재학 중

Human Being

Close Up 46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제14회 우수 작가



청년작가 이상원



Monument _70x57x100 cm, PLA, Resin, Paint, 2026.

이상원 작가는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에 질문을 던진다. 하나의 대상은 본래부터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과 사회가 축적해 온 관념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는 것일까 작가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해 개인의 시선과 사회적 인식 사이에 놓인 미묘한 간극을 탐색한다.

그가 주목하는 유인원은 인간과 가장 가까운 존재이면서도 인간에 의해 끊임없이 구분되고 규정되어 온 대상이다. 자연에서 비롯된 존재가 인간의 문명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연 그대로의 존재로만 인식되지 않는다. 인간은 유인원에게 친숙함과 낯설, 지성과 야성, 우스꽝스러움과 숭고함 등 서로 상반된 이미지를 투영하며 자신이 가진 기준으로 대상을 해석한다. 작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시선이 지닌 모순을 발견한다.

작품 속 유인원의 형상은 고전 조각을 연상시키는 조형적 언어와 만나며 더욱 낯선 감각을 만들어낸다. 전통적으로 인간의 이상과 아름다움, 영웅성과 권위를 담아내던 조각의 형식 안에 유인원의 모습이 놓이면서, 익숙했던 미적 기준과 가치의 질서가 미세하게 흔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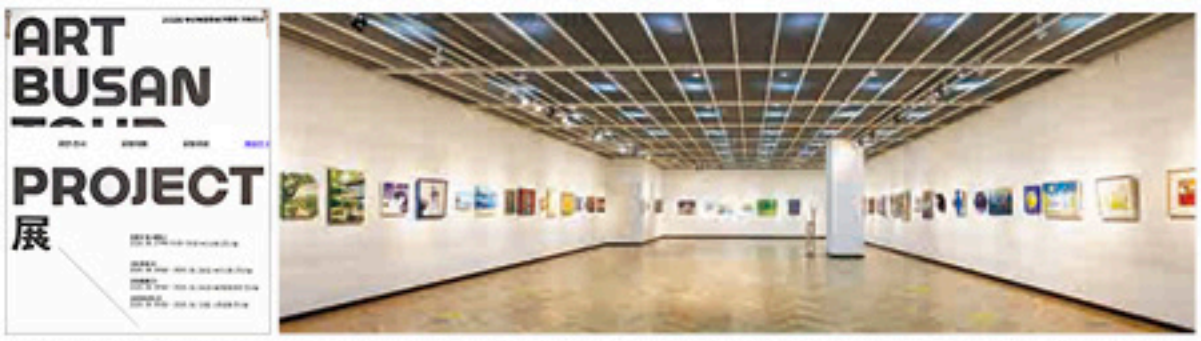
인간 역시 하나의 고정된 모습으로 정의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시선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의미가 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선은 인간과 존재를 규정해 온 사회적 기준과 개인의 인식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된다.

무엇을 아름답다고 말하고, 무엇을 인간적이라 규정하며, 무엇을 타자로 구분하는가. 작가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이러한 기준들이 과연 누구의 시선에서 비롯된 것인지 되묻는다. 작품 앞에서 관람자는 대상의 본질을 바라본다고 믿었던 자신의 시선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

- 2018 HYPETALE – 과장된 이야기 / 예술공간 디오티 / 부산
- 2021 HYPETALE – Jolly Chimp / 이노브갤러리 / 서울
- 2020 '이 전시는 교훈이 없다.' / 현대미술회관 / 부산
- 2022 자연생태감각-to nature / 을숙도문화회관 / 부산
- 2023 로이갤러리 기획전 《XXO》 / 로이갤러리 / 서울

부산독립미술가협회 'Art Busan Tour Project'展 열어

8월 23일~9월 12일, 부산시청·동래문화회관·부산시민공원 다솜갤러리



2026 부산독립미술가협회 'Art Busan Tour Project' 전시포스터(왼쪽)와 부산 시청 전시실에서 열린 2026 부산독립미술가협회 전시회 모습.

부산독립미술가협회의 기획전 'Art Busan Tour Project'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부산 도심 곳곳에서 순회 전시로 열렸다. '도시 속에 더 도심으로'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를 중심으로 도시가 품은 역사와 기억, 생태와 인간의 삶을 예술적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정체성을 모색했다. 전시는 8월 23일~29일 부산시청 제2전시실을 시작으로 8월 30일~9월 5일 동래문화회관 전시실, 9월 5일~12일 다솜갤러리에서 이어졌다. 회원과 초대·찬조 작가 등 40명 내외가 참여해 회화, 수묵·채색화, 판화, 영상, 설치, 공예 등 장르의 작품 50여 점을 선보였다. 부산독립미술가협회는 도식화된 미술 장르와 주류 미술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통해 부산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전시는 도시 공간에 축적된 기억과 현재의 변화를 예술로 기록하고,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산미술연구회, '기억과 재해석의 아카이빙 2026' 열어

9월1일~6일,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



산미술연구회 '기억과 재해석의 아카이빙 2026' 전시 포스터.

산미술연구회(SARA)가 '기억과 재해석의 아카이빙 2026'을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 제1·2전시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지역이 간직한 역사적 기억과 개인의 삶의 서사를 현대미술의 시각언어로 재해석하고, 이를 학술과 공연예술로 확장한 복합 예술 프로젝트로 이뤄졌다. 이번 전시에는 회원 작가 25인을 비롯해 광주 작가 10인, 독일·루마니아·핀란드·덴마크·시리아·중국·일본·인도·몽골 등 9개국 해외 작가 21인 등 총 56명이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부산 작가들이 5년째 이어온 100호 대형 작품전을 통해 지역 현대미술의 창작 역량과 깊이를 보여주며 영호남 작가와 해외 작가 간 예술적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시와 세미나, 공연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의 문화적 기억을 기록하고 이를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예술 아카이브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부산기독미술협회 제25회 정기회원전 개최

10월20일~25일, 금련산갤러리



제25회 부산기독미술협회 정기전 대표작품사진.

부산기독미술협회 제25회 정기회원전 '은혜 위에 은혜'가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린다.

'하나님이 남기신 사랑의 흔적들을 부제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종교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가들이 각자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조형언어를 통해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이다. 전시는 서양화와 한국화를 비롯해 조각, 공예, 서예, 판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특히 하나의 주제를 각자의 시선과 방식으로 해석해낸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동시대 미술과 만나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여준다.

부산기독미술협회 이양우 회장은 "예술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작업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각자의 조형적 언어로 표현하고 작품 속에 녹여낸 작가들의 이야기를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읽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씨올미술협회, 씨올展개최

10월21일~26일, 인사아트 부산갤러리



(위)2026 씨올 대표 작품 사진, (아래)2025 오픈식 기념 단체사진.

씨올미술협회의 씨올展이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에서 열린다. 다양한 분야 미술을 통해 감정과 사유를 표현하며,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고자 모인 씨올 미술협회는 형상, 비구상, 탈 장르 예술의 깊이와 다양성을 탐구하는 60여 명의 원로 및 신진 작가들로 구성된 예술 단체이다. 서상환, 여홍부, 배명희, 박인관, 오재환, 박선민 등 부산미술협회 회원들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보는 이로하여금 영감을 주고 예술적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서양화, 동양화, 판화, 사진매체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씨올미술협회는 정기적인 전시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작가들에게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고, 관람객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다채로운 매체와 기법을 활용하여 비구상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관람객에게 독창적인 경험과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예술생태계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임창석, 이새희 2인전 '현실, 이상의 경계' 개최

10월28일~11월2일, 인사아트 부산갤러리



이새희 _Really-너를 위해 기도해(위), 임창석 _현실, 이상의 경계-사유의 시간이래.

임창석·이새희 작가의 2인전이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현실, 이상의 경계'를 주제로, '사유의 시간'이라는 부제 아래 두 작가의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임 작가는 파도와 항구·도심의 불빛, 날개 등의 이미지를 통해 현실과 이상을 표현하며, 대표 작품 〈현실, 이상의 경계-사유의 시간〉에서 잠시 한걸음 물러서 자신과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을 담아낸다.

이 작가는 보이지 않는 고통과 익숙해져 버린 무관심,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화면 속 실제 고양이와 인형의 형상을 결합한 두 마리의 고양이를 통해 동물과 사물, 사랑과 소유 사이의 모순을 드러낸다.

임 작가가 형상을 통해 현실과 이상의 경계를 사유한다면, 이 작가는 고양이를 매개로 외면해온 현실과 무관심의 문제를 들여다본다. 두 작가의 작품은 눈앞에 드러난 현상 너머의 감정과 기운, 관계와 존재를 바라보며 관람객에게 잠시 멈춰 생각하는 시간을 건넨다.

서말분·손수진 2인전 '복, 아름다움으로 담다'

11월18일~23일, 인사아트 부산갤러리





서말분 _금강산 만복도(왼쪽), 손수진 _빛(위).

서말분·손수진 작가의 2인전 '복, 아름다움으로 담다'가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서 작가의 '복된 인연이어라'와 손 작가의 '도자기에 담은 빛과 마음'을 부제로 열리며, 아름다움과 행복의 의미를 작품으로 풀어낸 두 작가의 작품 총 60여 점을 전시한다.

서 작가는 꽃과 나비, 새 등 길상의 상징을 민화적 색채와 현대적인 조형으로 재해석해 행복과 복을 기원한 작품을 중심으로 선보인다. 특히 〈금강산 만복도〉는 창덕궁 희정당의 금강산 만물초승경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일만 이천 봉우리와 숲, 꽃, 운무와 물길, 달항아리 등을 화면에 구성한다.

손 작가는 전통적인 달항아리에 흐르는 선과 나비, 금빛 선 등을 표현한 '빛' 시리즈를 통해 시간의 흐름과 삶의 궤적, 생명력을 담아내며, 회화와 공예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펼친다.

4 작가의 Story, 서로 다른 시선으로 만나다

10월 19일~29일, 북구 문화예술회관



(시계방향) 손영미, 정유경, 신미숙, 박영미 대표작품.

북구 문화예술회관 오픈 갤러리 초대전 '4 작가의 Story, 서로 다른 시선으로 만나다'가 10월 19일부터 29일까지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자연과 삶, 시간의 흔적을 따라 펼쳐진 박영미, 손영미, 신미숙, 정유경 작가의 네 가지 이야기가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네 작가는 자연과 일상의 풍경에서 저마다의 기억과 감정을 길어 올리고, 서로 다른 경험과 표현을 통해 삶의 순간을 작품으로 담아낸다. 그 안에는 내면을 작품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공통된 직관적 통찰과 다양한 재료와 색, 형태로 각기 독립적인 조형 세계가 함께한다. 작가들의 시선은 기억과 감정의 층위를 지나 삶에 대한 사유로 확장되고, 그렇게 축적된 시간은 다시 작품이라는 고유한 언어로 태어난다. 이번 전시는 서로 다른 네 개의 이야기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자연과 일상의 소재를 바라보는 각기 다른 시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북구미술협회 '제6회 북구미술축전'

9월 3일~11일, 북구예술회관



2026 부산북구미술협회 제6회 북구미술축전 오픈식 및 전시팸플릿.

올 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한 이번 북구미술축전이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북구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서양화, 한국화, 민화, 조소 분야로 지역의 젊은 미술인들과 원로 작가회원의 열정을 담아낸 다양한 기법의 작품 75점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회라는 점에서 그 의가 컸다. 부산북구미술협회는 2021년 북구문화예술플랫폼에서 북구에 거주하거나 작업실을 둔 작가 52명을 중심으로 창립전을 가지며 시작했다. 회원들은 지역 사회와 예술로 소통하는 대표적인 미술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예술을 매개로 소통하는 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정기전 외에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 및 재능기부 활동으로 구포2동 마을벽화 사업에도 참여하며, 북구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는 '화명장미공원 맛길축제'에도 참여하여 화명 장미공원에 판넬 그림을 전시하여 지역 상권 살리기 및 지역 주민들과 예술을 매개로 활발히 소통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제69회 군록회 정기전 개최

10월13일~18일, 금련산갤러리



제69회 군록회 정기전 정영미, 박은희 작가 대표 작품사진

1955년 창립 이후 부산 미술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미술단체 군록회의 제69회 정기전이 오는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개최된다. 'The Abyss of Nature(자연의 심연)'를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전시는 군록회 회원 50명이 참여해 구상과 비구상 작품 50점을 선보인다. 한국 전쟁 당시, 피난 온 화가들이 부산작가들과 교류를 하였으나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자 부산화가들이 그 연맥을 이루고자 김봉진, 민백향, 차주환 작가가 1955년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온천동 고려다방에서 군록회의 창립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매년 정기전과 소품전을 이어오며 부산 미술의 전통을 지켜온 대표적인 향토 미술단체로 자리매김해 왔다. 군록회는 부산의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작품설명회와 다양한 교류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미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제65회 신우회 정기전 'BUSAN - real, expression 그리고 ai로 ART하다'

10월 6일~11일, 금련산갤러리

1973년 8월 창립된 신우회는 '새로운 작품 세계를 창출하며 함께하는 벗이라는 의미를 담은 미술 단체다.

당시 김용기, 김일랑, 우재만, 정수경, 최봉준 등 미술교사 5명이 유네스코 주관 교사 미술 전람회에 의무적으로 출품해야 했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기로 모임을 결성하면서 출발했다.



제65회 신우회 정기전 김천관 작가님 AI 작품(왼쪽)과 사진작품(중간)과 전시작품(오른쪽).

이후 54년의 시간 동안 회원 간 창작과 교류를 이어오며 부산 미술의 현장에서 활동해온 신우회가 제65회 정기전을 개최한다. 오는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BUSAN - real, expression 그리고 ai로 ART하다'를 주제로, 부산을 바라보는 작가들의 시선을 사진과 회화, AI 이미지로 확장해 보여준다.

전시는 크게 'REAL', 'EXPRESSION', 'AI' 세 가지 표현 섹션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부산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과정을 전시의 중요한 축으로 삼는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39명의 회원 가운데 36명이 참여하며, 사진 72점과 회화 72점, AI 작품 72점 등 총 216여 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하나의 주제를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현실의 기록에서 회화적 해석, 그리고 기술을 통한 새로운 이미지의 탄생까지 작품이 변화하는 과정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토백회 창립 51년, 71번째 전시 개최

10월 27일~11월 1일, 금련산갤러리



(시계방향순) 제71회 이진희, 노영설, 백낙효 작가 대표 작품사진.

올 해로 창립 51주년을 맞이한 제71회 토백회 정기전이 10월 27일부터 11월 1일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린다. '인간의 삶,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하여, 화원 작가 27명의 내면에서 나오는 자유롭고 독창적으로 표현한 작품들로 20호부터 100호 규모의 작품, 그리고 순수한 시선이 담긴 어린아이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한다. 아름 통해 초심을 떠올리게 하는 아이들의 작품과 전통회화의 정통성뿐만 아니라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1976년 창립된 '토백회'는 예술과 문화에 척박한 환경이었던 70년대 부산 화단에 윤종철, 양재식, 구은인, 박기택, 김문수, 안세홍, 정차영, 박맹식, 이성기 작가로 구성되어 창립된 구상미술단체이다. 토백회는 매년 신인작가들과 중장년, 원로작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어우러진 작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작품 세계를 통해 부산미술의 역사적 의의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취지와 함께 지역미술과 한국미술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 시선회 정기전 개최

11월7일~22일, 금련산갤러리



(시계방향순)작년 시선회 정기전 단체사진 및 전시장 전경사진, 제23회 정기전 대표작품사진

여성 작가들의 창작 단체인 시선회의 전시 '계절의 숨결'이 11월 7일부터 11월 22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린다. 서양화, 비구상, 한국화, 민화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이번 전시에는 15명의 작가가 참여해 총 8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들은 계절의 변화 속에서 마주한 자연과 일상의 아름다움, 생명의 기운을 저마다의 시선과 표현으로 담아낸다. 같은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서로 다른 감성과 개성이 드러나는 작품들을 통해 계절이 전하는 아름다움과 숨결을 느낄 수 있다. 2002년 서양화 작가 강혜자 선생님을 회장으로 추대하며 전시와 창작활동을 이어온 시선회는 작가 간 소통과 교류를 바탕으로 여성 작가들의 예술적 역량을 함께 키워오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서로 다른 장르와 작품세계가 어우러지는 풍성한 예술적 풍경을 선보이며, 관람객에게 따뜻한 감동과 새로운 시선을 전하고자 한다.

가온누리예술연구회 특별전 'COEXIST' 개최

11월25일~30일, 인사아트 부산갤러리



(시계방향순)2026 가온누리예술연구회 특별전 전시포스터 및 대표 작품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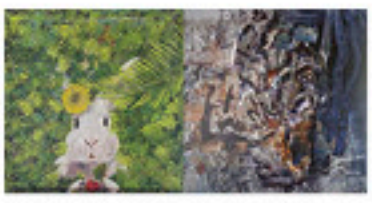
2019년 21인의 작가가 창립전을 시작으로 결성한 현대미술 연구단체 '가온누리예술연구회'의 특별전이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에서 열린다.

매년 정기전과 특별전을 개최해온 가온누리예술연구회는 이번 전시에서 부산의 바다를 배경으로 바다·산·섬의 이미지를 파란색으로 표현한 도자 작품을 비롯해 회화와 도자를 접목한 설치작업, 팝아트 계열의 현대미술작품 등으로 이루어진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하진 회장은 "본회는 정형화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재료와 기법, 그리고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전시를 통해 서울에서도 부산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선보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미회 '사제와의 동행' 개최

12월 15일~20일, 금련산갤러리



2025 사미회 정기전 김갑수, 탁노 작가 대표 작품사진

부산사대부고 졸업생으로 구성된 '사미회'는 미술 작품 활동을 중심으로 전시회, 아외스케치, 세미나, 모교발전 행사 등을 이어오고 있다. 사미회의 전시가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의 부제는 '사제와의 동행'으로 하여, 시대정신에 맞는 사제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함께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유화, 수채화, 아크릴, 공예, 설치 등 구상과 비구상을 막론하고 모인 19명의 작가들을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 맞추어 감양순, 탁노, 김옥련, 김경남, 하은희 작가의 추상작품과 손제현 작가의 극사실화는 한층 더 새로워진 작품들로 선보일 예정이다.

사미회 박종환 회장은 "이번 전시가 한 해 동안 고민하고 창작한 흔적을 보여주고 발표하며 회원들 상호간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시장이 거듭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윤철 개인전 '사유의 선–수양으로서의 회화'
7.17–8.8 공간 수류헌



자신에 미술의 주술적 기능에 관심을 두었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회화를 자기 수양의 도구로 전환하며,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삶과 존재를 성찰하는 작업을 선보였다. 란넨 천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이미지를 그린 뒤, 화면의 바탕이 되는 란넨의 날실을 한 올씩 흠아내 손바닥로 다시 메우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 행위는 비움과 채움, 생성과 소멸을 오가며 자신의 삶을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자 완전한 비움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을 더욱 진솔하게 보여주었다.

남경숙 개인전 '피어나는 순간의 언어'
7.20~7.25 부평아트스페이스



남 작가는 꽃이라는 소재를 통해 시간과 감정의 결을 아크릴의 두터운 물감 질감을 쌓아 올려 유화와 같은 깊이와 질감을 구현한다. 꽃이 피어나는 찰나를 삶의 성장과 치유의 시간으로 확장 시킨 작가는 부는 이로 하여금 두터운 물감 층 사이로 드러나는 색의 깊이와 섬세한 결은 그 안에서 저마다의 감정을 떠올리게 했다. 화면 위에 피워낸 꽃은 자연의 형상이 아닌 마음의 풍경이었으며, 자신만의 기억과 감정으로 다시 꽃피우는 순간의 생명력과 온기를 더했다.

제21회 한국서각협회 부산지회전 '새김으로 엮는 동아시아 서각 이야기'
8.16–8.22 부산시청 제3전시실



서예와 조각이 결합된 서각 예술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 이번 전시는 전통 문자예술의 미학과 현대적 가능성을 함께 조명했다. 나무와 돌 위에 새겨진 작품에는 작가의 정성과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겼으며, 서로 다른 지역의 마감이 어우러져 풍성한 예술적 국제교류를 보여주었다. 특히 국경을 넘어 서각이라는 공통의 문화적 자산으로 소통하며,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새로운 조형언어로 확장해가는 서각의 현재를 만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고암 이용완 개인전 '천상의 세계'
8.18–8.23. 금련산갤러리



이번 전시는 서화의 '중봉'의 선질을 탐구하며 활동을 이어온 고암 이용완 작가가 지난 46년간 이어온 서화 작업을 한지라에 처음 선보이는 자리로, 서예를 비롯해 사군자, 문인화, 불화 등 총 110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붓끝의 획을 중심에 두고 운필하는 중봉의 묵직한 선질을 얻기 위해 꾸준히 정진해온 작가는 스승 故 강포 김상용 선생의 가르침과 말씀을 되새기며 책을 벗 삼아 공부하고, 자신만의 선과 필획을 담아온 작품들을 선보였다.

구경미 제13회 초대개인전 '고래, 기원이 되다'
8.19–8.24 G · ART갤러리



이번 전시는 구 작가가 지닌 생명에 대한 관찰과 기억을 바탕으로 자연의 기원과 시간을 회화적으로 풀어냈다. 작가는 자연의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 안에 축적된 생명의 흔적을 서로 다른 재료와 표현 방식으로 드러냈다. 천연안료를 중심으로 한 보타니컬 회화와 유화·아크릴을 활용한 작업은 서로 다른 조형 언어 속에서도 생명을 향한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졌다. '생명은 어디에서 시작되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물음은 화면 속 자연의 이미지와 기억을 통해 진진하게 확장되었다.

정상지 개인전 '신묘하고 아름다운 순간'
8.27–9.20 슬로갤러리



작가는 상실의 기억과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의 경험을 통해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화면에 담아낸다. 이번 전시에서 도깨비 가면과 12지신 예착 인형 등 낯설지만 늘 인간 곁을 지켜온 소재는 아이의 세계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으며 사랑과 보호, 기억의 상징으로 자리한다. 먹물과 세필, 공필 기법으로 한 겹씩 쌓아 올린 섬세한 화면은 빠르게 흘러가는 삶의 시간을 붙잡고, 소중한 존재를 오래 바라보고 기억하고자 하는 작가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했다.

제27회 레오킴 개인전 'Rest_따뜻한 안식으로서의 여정'
8.30–10.25 스페이스 원지



레오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온 'REST' 시리즈를 중심으로 100호 작품 8점과 3~50호 작품 15점, 판화 3종 각 10점 등을 선보였으며, 작품과 함께 스카프와 에코백 등 다양한 굿즈도 만나볼 수 있다. 작가는 강렬한 레오파드의 이미지에 따뜻한 색채와 섬세한 결을 더해, 거친 세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의 풍경'을 표현한다. 그에게 그림은 아버지의 강인함과 어머니의 온기를 함께 품은 삶의 기록이자, 부모의 삶에 바치는 작은 헌사다.

이세훈 개인전 '공존의 경계에 흐르다'
9.1–9.10 복합문화예술공간 MERGE



이번 전시에서는 '영성의 고리' 연작과 신작을 통해 인간과 자연, 나와 타인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공존의 의미를 탐색했다.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세라믹 벽수(장승)와 새의 이미지는 현대사회의 파편화된 인간과 인간중심적 공존의 허구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연마와 샌딩, 레이어링을 통해 흙의 질감을 살리고 조각과 회화, 파괴와 생성의 경계를 허무는 조형적 실험도 눈길을 끌었다. 깨어짐과 비움의 과정을 거쳐 명면과 입체, 추상과 실재가 만나는 지점에서 깊은 사색의 울림을 전했다.

Part01.관계 '돌아난 숨, 무르익은 사유'
9.1–9.29 갤러리서린스페이스



이번 기획전은 서로 다른 세대의 작가들이 '관계'라는 키워드를 통해 만나며 부산 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1부 '관계'에는 중견 조각가 김문규를 비롯해 캠미림, 청년작가 심현성과 주경진이 참여해 스틸과 도자의 상이한 물성이 만들어내는 긴장과 조화를 보여줬다. 특히 견고함과 유연함, 끌어당김과 밀어냄이 공존하는 작품들은 사람과 사람, 개인과 세계, 세대와 세대 사이의 관계를 조형적으로 환기시키며,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까지 더해져, 직접 관계를 형성하고 쌓아보는 경험을 통해 전시의 주제를 확장시켰다.

구명본 초대개인전 '푸른해경'
9.1–10.9 범향갤러리



구 작가의 이번 전시는 비다로 확장된 시선과 새로운 작업세계가 눈에 띄었다. 특히 돌기루를 화면에 올린 뒤 갈고 깎아내는 방식으로 바다의 풍경을 구축하며, 쌓아 올리던 기존 작업과는 다른 조형적 변화를 보여준다. 쌓아 올리기보다 덜어내는 작업 방식은 표면에 시간의 흔적과 자연의 질감을 고스란히 남기며 구 작가가 새롭게 마주한 푸른 풍경과 그 안에 새겨진 시간의 깊이를 만나볼 수 있다. 오랜 시간 소나무를 바라보며 작업해온 작가의 시선이 이번에는 바다라는 공간을 통해 삶의 움직임과 자연이 지닌 무언의 힘으로 확장된다.

장안용 개인전 '추억의 지층'
9.5–9.27 남만시간연구소



부산의 사라져가는 풍경과 그 안에 남겨진 기억을 기록하고 있는 정 작가는 영도·동구·서구·중앙동 등 소멸 위기 지역을 직접 걸으며 과거의 사진을 현재의 빈집과 소락한 거리 위에 다시 세워, 사라진 시간과 공간을 현재의 시선으로 마주하게 했다. 역사 고증과 현장 촬영, 재–사진화의 과정을 통해 재현이나 복원을 넘어 도시의 변화와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흔적을 새로운 시각적 사료로 남겼다. 이번 전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부산의 풍경을 하나의 '시간의 지층'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발을 딛고 선 도시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생각하게 하는 기록이자 실험적 작업으로 의미를 더했다.

'자연을 이루는 것들'
9.5–10.15 허먼갤러리



부산비엔날레 기간을 맞아 허먼갤러리가 도예가 이경환, 돌을 매개로 작업하는 정희욱, 한지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이건희의 작품을 한자리에 선보이고 있다. 자연에서 비롯된 서로 다른 물질을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은 세 작가는 각기 다른 조형 언어를 구사하지만, 그 이면에는 물질과 인간, 자연과 삶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공통의 질문이 흐른다. 이번 전시는 흙과 돌, 한지라는 익숙한 물질의 표면과 질감, 시간의 흔적을 통해 자연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간다. 일상적 물질에 깃든 감각과 시간을 마주하며,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자연과 관계 맺는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게 하는 자리다.

선연자 특별초대전 '그림자는 꽃을 흔들 수 없다'
9.7–9.11 부산진구청 백양홀



선 작가는 식물과 생명의 이미지를 통해 외부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탐구한다. 작가는 식물의 결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한편, 빛과 그림자의 강한 대비를 활용해 생명체가 지닌 단단함과 내면의 힘을 시각화했다. 자연의 확장된 형태와 섬세한 색채는 감정의 미세한 떨림과 맞물리며 화면에 깊은 서정성을 더한다. 특히 생명성과 감정,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한 작품들은 관람객에게 내면을 들여보는 조용한 사유의 시간을 선사했다. 이번 전시는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지켜내는 생명의 힘을 드러냈다.

제32회 수영구 미술회전
9.7–9.12 비다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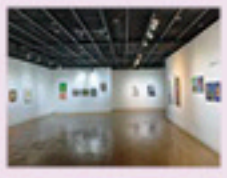
올해로 32회를 맞이한 수영구 미술회는 30여 년 전, 남구미술회에서 수영구 미술회로 갈라져 나와 구상, 비구상 등의 작업을 하는 작가들로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서양화, 한국화, 입체, 수채화, 디자인 등 다른 장르와 개성을 가진 작가들이 모여 예술의 다양성을 나누고 있다. 이번 전시는 세대와 표현 방식의 차이를 넘어 긴 시간 함께 전시를 이어온 회원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로, 수영구 미술회가 지닌 폭넓은 예술적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이번 전시는 비다갤러리에서 개최되는 마지막 전시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제79회 미술동인 혁展 '경계를 넘어'
9.11–9.29 갤러리 조이



창립 64주년을 맞이한 미술동인 혁의 정기전이 열렸다. 동인 혁은 어떠한 사조나 사상, 관념도 창조를 통해 넘어서는 힘을 보여주고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왔다. 이번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과 이상, 자아와 타인, 과거와 미래와 같은 수많은 경계와 마주하게 되는 이러한 지점을 각자의 개성과 예술적 철학을 통해 서로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서양화, 조각, 판화, 공예, 한국화로 이루어진 작품 28점을 선보이며 자유로움과 확장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단초를 발견하게 했다.

제22회 부산누드드로잉협회 정기전
9.15–9.20 금련산갤러리



이번 전시는 인체를 재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데서 나아가, 몸에 깃든 움직임과 감정, 시간의 흔적을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냈다. 한 사람의 몸을 바라보는 저마다의 시선이 모인 이번 전시는 인체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긴 감성을 새롭게 마주하게 했다. 다양한 장르의 25명의 작가가 바라본 인체는 때로는 긴장감 있게, 부드럽고 섬세하게 변주되며 각자의 미감과 사유를 드러낸다. 조형적 요소가 두드러지는 회화부터 드로잉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장르와 표현 방식은 인체가 지닌 조형적 가능성을 다채롭게 보여주었다.

제3회 지당 김윤임 개인전 '벽사진경(辟邪鎭慶)'
9.17–9.22 한새갤러리 제1,2전시실



김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서 오랜 시간의 흔적을 하나의 화면에 겹쳐 놓으며 기억과 시간의 층위를 섬세하게 드러냈다. 전통적인 서예의 필선과 여백은 사유가 머무는 공간으로 확장됐다. 예부터 전해 내려온 의미를 통해 길상과 복을 기원하듯 먹의 농담과 번짐, 절제된 화면 구성은 지나간 시간과 현재의 감각을 한 화면 안에서 교차하며 선현들의 지혜를 담아냈다. 시간 속에 축적된 삶의 흔적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비움과 여백의 미학을 경험하게 했다. 특히 글과 그림의 경계를 넘나드는 표현은 작품에 언어 이전의 정서와 깊은 울림을 더했다.

노주련 개인전 '주련의 딱지–시간을 접다'
9.20–10.1 스페이스 나무 갤러리 오로라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딱지'를 매개로 개인의 기억과 시간의 흔적을 화면에 담아냈다. 작은 종이를 접고 모개는 반복적인 행위는 놀이를 넘어 노동과 사유의 시간이 되고, 켜켜이 쌓인 기억은 하나의 풍경으로 확장됐다. 특히 전통 오방색의 '목(木)'에서 출발한 초록은 생명과 성장의 의미를 품으며, 작가의 기억을 현재의 풍경으로 다시 피워낸다. 수많은 딱지가 모여 만들어낸 화면은 가까이에서는 작은 기억의 조각으로, 멀리서는 하나의 거대한 풍경으로 읽힌다.

회원님의 전시소식을 기다립니다

부산미술은 부산미술협회 회원님들과 미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입니다. 계간지로 월초에 발간되는 부산미술은 회원님들의 귀중한 전시소식을 기다립니다. 마감기한은 발간 전월 15일까지 전시소식을 부산미협으로 보내주시면 다음달 발간되는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blaa1946@daum.net : 전시명, 작가명(단체전일 경우 참여 작가명단), 전시기간, 갤러리명, 연락처, 작품 이미지(저화질 게재 불가/파일 제목 캡션 필수), 기획내용 및 특징, 작가의 생각을 담은 작가노트 A4용지 1장 또는 1/2 분량]

부산갤러리 전시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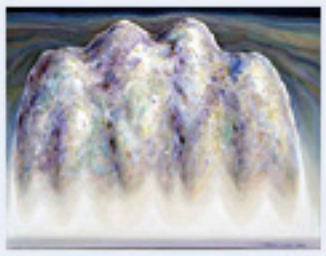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41-1 인사아트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부산미술협회가 운영하는 전시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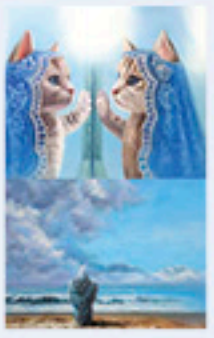
9.30–10.12 장용길 개인전



10.14–10.19
부산대 대학원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그리는 시간
이어지는 풍경'



10.21–10.26 씨올전



10.28–11.2
임창석
이새희
2인전



11.4–11.9
강연희
개인전
'풍경:
유연한
경계'



11.11–11.16 김래분 개인전
'산, 그리고 삶의 이야기'



11.18–11.23
서말분, 손수진
2인전
'복,아름다움으로
담다'



11.25–11.30
가온누리
예술연구회
특별전
'Coexist
(공존하다)'



12.2–12.7 황외성 개인전
'문인산수화의 확장과 변주'



12.16–12.21 김은미 개인전
'Trace-wind'



7.3–10.25
미셸앙리위대한 컬러리스트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6.17–2027.4.10
Ralph Gibson 'French Allure' 프렌치
얼루어
고은갑슨사진미술관



8.25–10.10
오혁진 개인전 '시리지기 전의 이름'
리나갤러리 부산점



8.26–11.8
갑택상 개인전 '그대로 As it is'
조현화랑 달맞이



8.27–10.30
BU갤러리 기획전시 홍익대 27인
작가 작품전 '시선의 결' ABU갤러리



8.28–10.10
송광익 개인전 'Paper Things'
리앤배 제1, 2전시실



8.29–10.25
김유경 개인전 '가을 호, UNSEEN'
갤러리궁



8.29–10.31
코리크릿 이룬나는치이 개인전
'제의를 품은 신체들'
국제갤러리 부산전



8.29–12.31
오로니엄 '사랑 안의 미로'
F1963 석천홀



8.29–11.1 2026
부산비엔날레 '불협하는 합창'
부산현대미술관 스페이스 원지
(구부산남고등학교



8.29–11.1
소장품설 심주섭 '기관의 순환'
부산현대미술관 전시실 1



9.1–10.15 김세로X김재영 2인전
'우리가 품은 무게에 대하여'
홍티예술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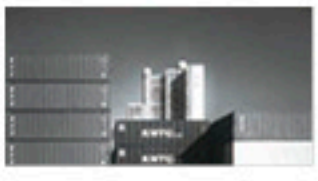
9.5–10.15
'내가 발을 딛고 선 이곳은'
제이작업실



9.5–10.24
'Partial Light'
갤러리 플레이리스트



9.11–10.10
박지현x박상용 '수집된 관습, 해방된
재료' 2nd 기획의 밀도-정의 노동,
빛의 기록
어컴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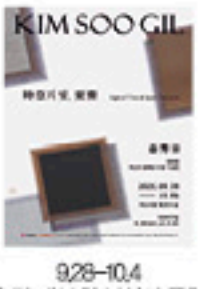
9.16–2026.11.5
부산프로젝트 '이인미展' 연계전시
부산프랑스문화원



9.18–10.10
이원호 개인전 '얇곷게 파란'
갤러리인터페이스



9.19–10.25
이소윤 개인전 '풍경무주'
카린갤러리



9.28–10.4
김수길 제88회 부산시 문화상
수상기념전
부산시청 제3전시실



10.1–10.9
이상희 개인전'DREAM'
이젤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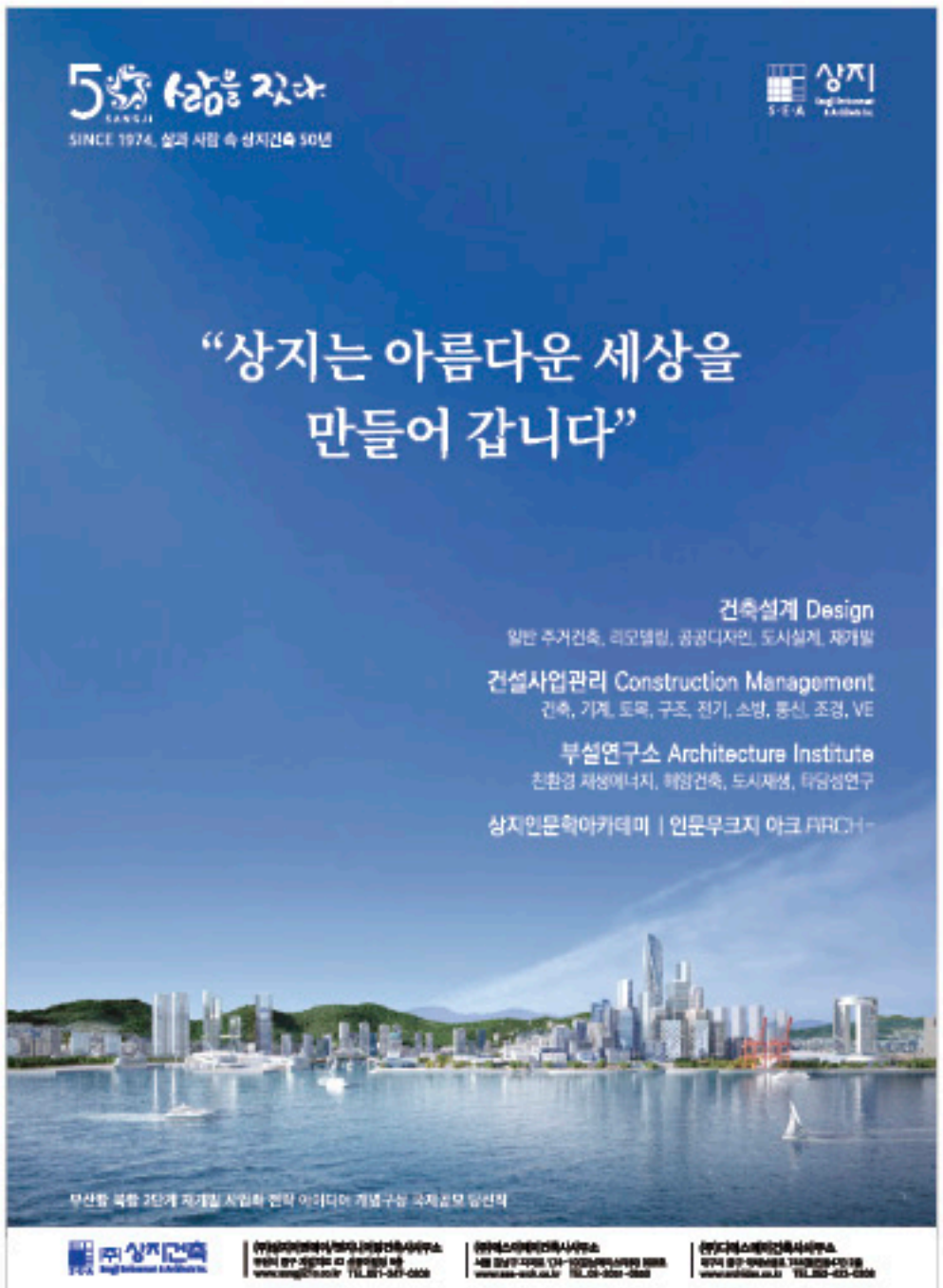
10.1–10.31
이혜&이민 2인전 'Emotion II'
레오앤갤러리



10.3–10.19
김화주 초대전 '서간문'
갤러리아트룸

부산미술 등록번호 부산남.라00005
· 발 행 인 : 최장락
· 발 행 처 : 사)부산미술협회
· 편집위원 : 김성현 · 김종원 · 정연은 · 진수아
신현정 · 김은비
■ 주 소 : 48501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대연동) 부산예술회관 402호
■ Tel. 051) 632-2400 Fax. 051) 644-4183









영도의 시간을 품은 공간,
스페이스 원지

부산 영도 봉래 물양장은
한 세기 넘게 조선산업과 해양도시 부산의 역사를 품어온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과거 동국보세창고와 선박 수리 시설을 재생해 탄생한
스페이스 원지는 약 1,100평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100년의 시간을 간직한 산업유산 위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옥선 시설과 카페·다이닝을 갖춘 F&B 공간은
기업행사, 국제회의,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목적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산의 역사와 지역성을 바탕으로 세계와 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문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산다운 방식으로 세계를 맞이하는 스페이스 원지 -
새로운 영감을 경험할 국내·외 기업을 환영합니다.

스페이스 원지 | Dining, Coffee, Exhibition, Convention Venue, Events |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나루로 214 | 051-412-4500 | 부산항에서 차로 10분 / 무료 주차 가능

* 본 간행물은 2026년 부산광역시비를 일부 지원받아 제작합니다.